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제1421호

'주식형→채권형' 펀드 자금 대이동

주식형 3조5600억 빠지고 채권형 4조3000억 유입
국내외 증시 불안 여파 투자자들 '안전자산'에 몰려

펀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갈아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강세가 지속된 것도 채권 투자 선호를 부추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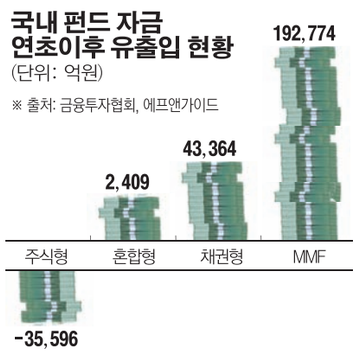
17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에서 3조55%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국내 채권형 공모 펀드로는 4조3364억 원이 새로 들어왔다.

전일 기준으로 공모형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0조8570억 원으로 50조 원대를 겨우 턱걸이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에는 55조6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액티브 펀드와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서 각각 2조 원과 1조5000억 원이 유출됐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1.34%로 손실을 기록 중이다. 액티브형 펀드 중에서 테마펀드가 -5.89%로 가장 부진했고 중소형 펀드도 -3.54%의 평가손실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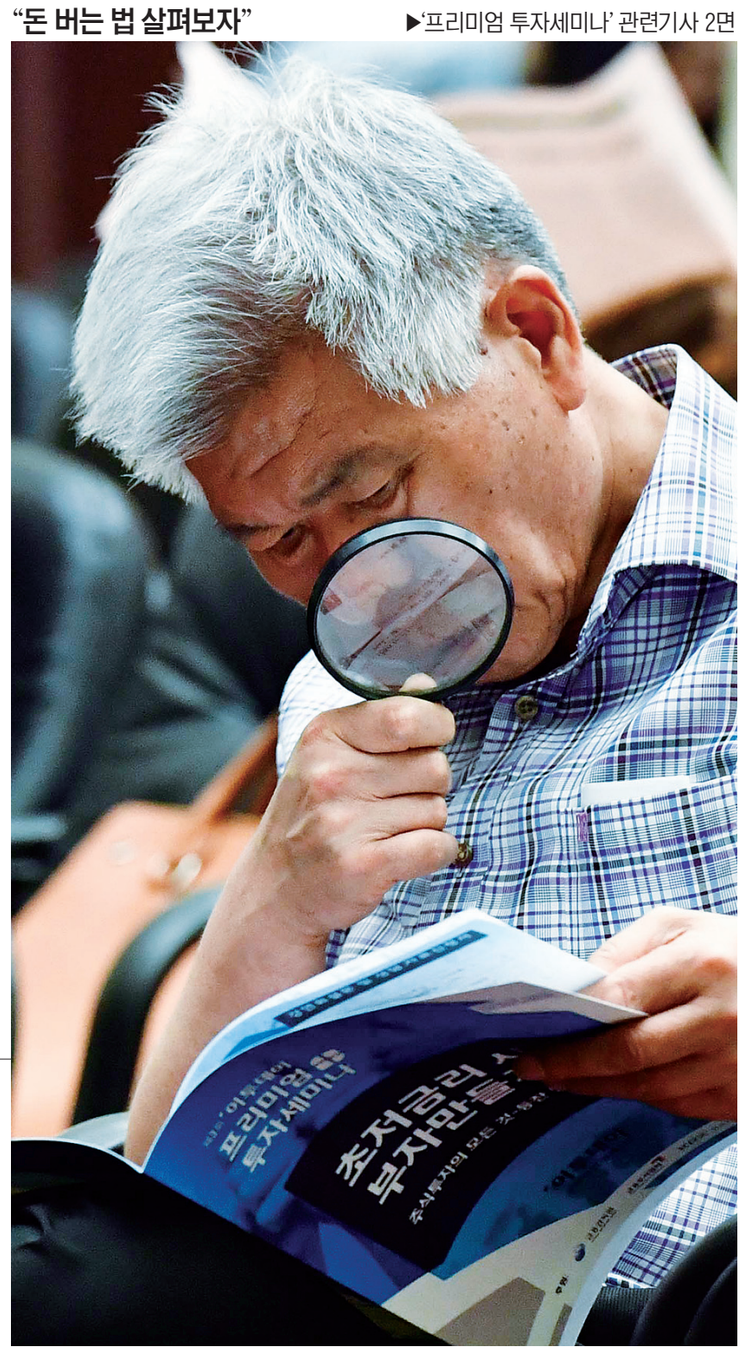
반면 채권형 펀드에 4조 원 이상이 들어온 데 이어 머니마켓펀드(MMF)에도 19조2774억 원이 더 들어오면서 설정액은 104조5628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혼합형 공모펀드 중에서도 주식혼합형(177억 원 유입)보다 채권혼합형(1314억 원 유입)에 8배 가까이 자금이 몰렸다. 채권형 펀드 1.54%, MMF는 0.64% 수익률을 각각 내며 원금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문수현 NH투자증권 WM사업부 연구원은 "최근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채권값 상승 환경이 조성됐다"며 "채권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안 요인으로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투자금이 이동하는 추세"라며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당분간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돈 버는 법 살펴보자" ▶'프리미엄 투자세미나' 관련기사 2면



'제3회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세미나'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초저금리 시대 부자만들기'를 테마로 연 이번 세미나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효과적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는 자리다. 세미나 참석자가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순혈주의 회장' 전통 신한지주 벌써부터 뜨거운 '차기' 레이스

서진원·조용병·위성호 3명 압축
모두 고려대…11월 회추위 구성



왼쪽부터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조용병 현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하마평이 벌써부터 피어오르고 있다. 한동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지만, 은행 정관상 2개월 전에는 회장을 지명해야 하고, 이를 위한 회추위가 오는 11월 구성될 예정이어서 회장 추대를 위한 내부 경선은 사실상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신한지주 회장 후보로는 서진원 신한은행 고문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그리고 조용병 신한은행장 등 3명이 거론된다.

그동안 잠재 후보군은 7명의 계열사 사장이 모두 거론됐다. 이에 비하면 벌써 절반으로 압축된 셈이다.

신한지주는 전통적으로 신한 내부 출신만을 등용했다. 이를 외부에선 '순혈주의'라 일컫는다.

또한 일본 근무 경력을 중요시했다. 재일교포들이 대주주였던 것이 이유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맞붙은 '신한사태' 이후 재일교포 대주주의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은 서진원 고문이다.

서울신탁은행 출신인 그는 신한은행은 물론 특히 신한지주에서 전체를 총괄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대구 계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정관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조용병 행장은 대전고, 고려대 출신이다.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 부행장 등을 거친 정통 '신한맨'으로 분류된다.

위성호 사장도 고려대 출신이다.

유력 후보군 3명이 모두 고려대 출신인 셈이다. 황윤주 기자 hyj@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상태 경영비리 키맨 '이창하'

수상호텔 사업 자금흐름 추적
檢, 비자금 창구역할 단서 확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건축가 이창하〈사진〉 디에스온(DSON) 대표가 비자금 조성 및 연임 로비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등장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대표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특혜 사업을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우조선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과거 이 대표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따낸 오만 수리조선소(ODC)의 수상호텔 베로니카 인테리어 사업과 당산동 사옥 출장자 숙소 인테리어 사업의 자금 흐름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특혜사업을 중심으로 압수물 분석과 대우조선 관계자 참고인 조사가 연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우조선 공사 수주와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친형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당초 남 전 사장의 경영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과 이 대표가 비자금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은 전날 대우조선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남 전 사장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안철우 기자 acw@

탕탕탕! 총성에 브렉시트 기류 급반전

잔류 지지 여성의원 피격 사망
충격에 빠진 英… 캠페인 중단
국민투표 연기 가능성도 거론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를 지지해온 영국 노동당의 여성 하원의원이 16일(현지시간) 괴한의 피습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뇌관으로 꼽혔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BBC 등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 콕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잉글랜드 북부 웨스트요크셔 버스톨도서관에서 유권자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콕스 의원은 의원 보좌관과 잠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남성으로부터 세 차례 총을 맞고 흉기에도 찔렸다.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영국이 우선이다"를 외쳤던 것으로 전해져 브렉시트 찬성파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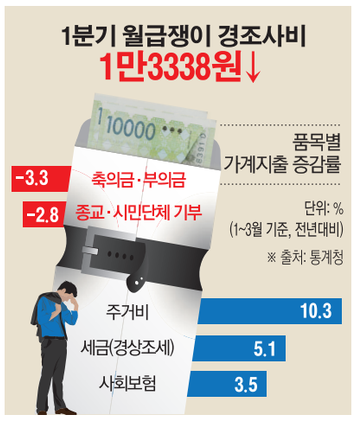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를 호소해온 영국 노동당의 조 콕스(41) 하원의원이 잉글랜드 북부 웨스트요크셔 버스톨 도서관에서 16일(현지시간) 50대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해 사망했다. 런던 의회 광장에서 한 시민이 콕스의 사진 앞에 꽃과 촛불을 놓으며 그를 추모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콕스 의원의 피습 소식이 전해진 후 영국과 유럽은 충격에 빠졌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브렉시트 찬반 진영의 캠페인은 모두 중단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콕스 의원의 가족, 그의 선거구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브렉시트 관련 보고서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브렉시트로 인한 파급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하락세로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콕스 의원의 피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반등에 성공,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장 초반 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오후 들어 급격하게 반등해 1.4215달러까지 올랐다. 이 사건으로 EU 잔류 여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과 브렉시트 투표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데이터 뉴스 Data News



경기침체 여파 축의금도 줄였다

경기침체 여파로 경조사비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어 주변에 인심을 쓸 여유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올 1분기(1~3월) 경조사비가 주요 구성 항목인 '가구간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8611원) 줄어든 25만127원이었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가구주인 근로자 가구의 가구 간 이전 지출이 4.8%(-1만3338원) 감소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이슈&인물 ▶15



정무위원장 이진복 의원



Biz Enter ▶17
로엔엔터 지배구조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이윤태 사장 ▶8



윤송이 이사장 ▶12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檢 칼바람 부는데 회장선거 돌입한 회계사회

삼일PwC가 미는 최중경 유력

"부실 감사 분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물에 표가 쏠릴 겁니다. 업계 1위인 삼일PwC 등 대형 회계법인이 표를 응집하면 회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 차기 회장 선거가 22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주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표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에게 몰릴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은 현재 삼일PwC와 딜로이트 안진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이 주요 현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업계가 기업 부실 책임의 몸통으로 지목되면서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총회에서 현장 투표로 진행되는 것도 표 응집 가능성이 높은 배경으로 꼽힌다. 회계사회 회원은 1만8000명 정도이지만 회장 선거가 현장 투표로 진행되는 탓에 실제 투표 참여자는 4000~6000명 수준이다. 국내 회계법인 관계자는 "젊은 회계사들은 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정 계층의 의견이 집중 반영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 추진이 회계사회 회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최 후보에게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벌기보다 잃지 않기… 위기 속에도 투자 기회는 온다”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세미나

초저금리 시대 부자만들기

“이제는 잠재된 자원을 이끌어 내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이에 걸맞은 자신만의 투자 기업을 발굴해야 할 때입니다.”(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회장)

“시장이 돈을 벌 때까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버는 것입니다.”(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제3회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초저금리 시대 부자 만들기’에 강사로 나선 4인의 자산관리전문가들이 쏟아낸 조언이다.

200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김현준 더퍼블릭투자자문 운용총괄이사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장 등 투자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가치투자의 모든 것’, ‘주식투자 백전백승 전략’, ‘주식 변동성 위험 대처법과 투자 방법’, ‘눈여겨볼 투자처’ 등을 소개했다.



‘제3회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세미나’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연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4차 혁명’ 자신만의 관점으로 투자기업 발굴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가치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16일 투자세미나에서 세계 경제의 현주소를 “과거 100~200년 사이 만든 수많은 경제시스템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진단하며, “올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0% 이상이 금리를 재차 인하했지만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아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수백만 년 동안 경제적 가치창출에서 전통적 생산요소가 노동과 자본재, 토지였지만 제4의 생산요소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대표적 예시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숙소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들었다. 현재 이들 기업의 가치는 각각 510억 달러(약 60조 원), 255억 달러(약 30조 원)에 이른다.

그는 “우리 주변의 잠재된 자원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자동차나 집과 같은 물질적 자원으로 시작했지만 곧 인적자원과 정신적 자원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변화 국면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강 회장의 조언이다. 유혜은 기자 euna@

김현준 더퍼블릭투자자문 이사

미래 유망업종·종목 찾기 힘들어 ‘시장 통합형 회사’에 투자 초점



“미래 유망 종목보다 구조적으로 시장을 통합할 종목에 투자하라.”

김현준 더퍼블릭투자자문 운영총괄이사는 16일 투자세미나에서 “4차 산업 등 유망하다는 업종과 종목을 사실상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성숙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시장 통합형’ 회사를 주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 예로 한샘과 선진 등을 들었다. 김 이사는 “한샘은 가구업계 국내 1위지만 전체 점유율은 낮다”며 “10~2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이사는 중국 드라마 ‘신 삼국지’ 속 명언과 사례를 접목해 △너 자신을 알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 △적을 알고 싸우면 위태롭지 않다 △상대가 약할 때 싸워라 △홈 그라운드에서 싸워라 등 테마로 강연을 진행했다.

우선 직접 주식투자를 하거나 펀드 등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재무상황과 위험감수성향을 잘 알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과 싸우기보단 시장을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알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상대가 약할 때 싸우는 발상의 전환 방법도 소개했다. 흔히 고속버스 회사는 비유망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연간 이용객 수는 0.5% 수준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KTX가 새로 생긴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인구가 늘면서 고속버스 이용객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는 “삼국을 통일한 것은 천하제일 전략가인 제갈량이 아니라 제갈량이 죽기를 기다린 사마일족”이라며 “관심 있고 잘하는 주종목을 위주로 강점을 키우고 기회를 노리다 보면 백전불패”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투자 대가의 비법은 ‘복리 효과’ 원금 꾸준히 방어하는 전략 필요



“투자 대가들의 저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복리’입니다. 투자라는 게임을 끝낼 때까지 복리의 마술을 깨지 않는 것이 투자자의 역할입니다.”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16일 투자세미나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무는 “소위 투자고수의 공통점은 ‘짠돌이’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리효과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일반 개인투자자일수록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 원금을 꾸준히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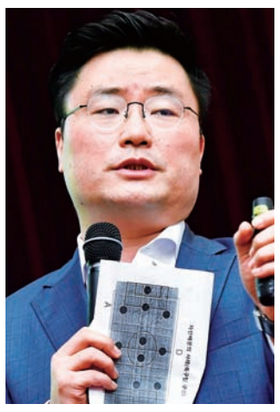
이 상무는 특히 ‘원금보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상의 펀드 두 개를 예시했다. 하나는 1년마다 -50%와 60%의 수익률을 번갈아 내는 ‘펀드 A’, 다른 하나는 번갈아 0%와 10%의 수익을 내는 ‘펀드 B’다. 일반 투자자들은 큰 폭의 수익에 이끌려 A펀드를 선택하는 성향이 있지만 10년 뒤 실제 수익률은 A펀드가 -68%, B펀드는 +60%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이어 이 상무는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라고 조언했다. 그는 “부가 형성되는 시기는 따로 있다”며 “과거 이자율이 15%에 달하던 시기에는 적금만으로도 5년 만에 원금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금을 두 배로 불리려면 70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익은 사람이 버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내는 것”이라며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또다시 버블이 형성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투자라는 게임에서 원금을 까먹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운이 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부동산 투자 2~3년 후 내다봐야 강변·공원·지하철 ‘RPS’지역 주목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이 원금 손해 안 보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황 속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소장은 16일 투자세미나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나는 것만이 재테크가 아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것도 재테크”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4대 이슈로 △영국 브렉시트 및 도미노 위험, 미국의 금리 인상 △중동사태(IS 테러 등)와 원자재 요동 △중국경제 및 북한위협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 위기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이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올해 들어 종합주가지수 30% 이상 빠진 날이 6번으로 한 달에 한 번꼴이다. 하반기 들어 그런 날이 더 많을 것”이라며 “브렉시트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정도로 위험하다. 불황에 돈을 버는 게 부자라면 하반기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또 “중요한 건 습관이다. 주변에서 찾아라”라며 “어떤 회사가 신제품, 신약을 만들었다고 하면 주식을 유심히 봐야 한다. 먹어보고 써보고 입어보고 괜찮으면 투자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투자전략에 대해 서 소장은 “부동산 투자는 2~3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며 “강변(River), 공원(Park), 지하철역(Subway station), 즉 ‘RPS’가 갖춰진 곳에 투자해야 한다. 조망권, 교통, 브랜드, 주차, 교육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투자목적으로 9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사서 돈 버는 것은 쉽지 않다. 비용을 고려하면 5억~6억 원대 아파트를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sun@

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함께하는 안전보건 행복한 대한민국

Week of Safety & Health

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The 49th Week of Safety & Health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2016. 7. 4(월) ~ 7. 8(금) COEX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2016. 7. 4(월) 10:30 COEX Hall E(3층)

국제안전보건전시회
2016. 7. 4(월)~7(목) COEX Hall A(1층)

안전보건 세미나 / 우수사례 발표대회
2016. 7. 4(월)~8(금) COEX 컨퍼런스룸(3층·4층)

부대행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안전 특집 강연회
2016. 7. 5(화) 15:00 COEX 컨퍼런스룸 401호

안전연극
2016. 7. 6(수) 16:00 / 7. 7(목) 13:00, 16:00
COEX 컨퍼런스룸 401호

안전보건 UCC Show
2016. 7. 4(월)~7(목) COEX Hall A(1층)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숨죽이던 롯데, 혐의 조목조목 반박…檢 "증명자료 내라" 압박

검찰-롯데 신경전 격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고강도 수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롯데그룹 간의 장외 공방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창구 역할로 의심받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사정당국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가 하면, 검찰은 이에 대해 "해명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수사당국과의 사법공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신동빈 회장 입장 발표후 자세 변화

롯데케미칼 거래 日계열사 끼워넣기

홍콩법인 통한 300억대 비자금 조성

"별도 자금형성 지시 없었다" 반박

오너일가 年 300억 수령 의혹에는

"檢 혐의내용 공개 지나치다" 항의도



검찰-롯데 비자금 수사 쟁점별 주장

검찰 측 혐의

"반박할 증명자료 내라. 한·일 수사당국 협조해 수사 검토할 것"

01 다수의 공급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통행세'를 받아 비자금 조성.

02 찬드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바'에 과다한 금액을 지급해 비자금 조성.

03 신규사업을 할때 홍콩 법인을 통해 비자금 조성.

롯데 측 주장

"그룹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도 자금 형성 지시 받은 적도 없어"

01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어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도를 활용, 롯데케미칼이 이익.

02 2012년의 경우 총 구입물량이 그해 총 구입원료 금액인 8조8108억원의 1.2%인 1060억원어치. 200억~30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기 불가능한 마진 구조.

03 카타르 석유화학콤플렉스 합작 프로젝트의 경우 취소됨. 결국 이 사업을 통해 400억원의 손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수사1부)은 16일 "롯데케미칼의 해명자료를 봤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해명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회사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케미칼이 전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제시한 3대 의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강경 대응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롯데그룹과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

롯데케미칼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찬드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바'라는 구매대행사에 과다한 금액을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더불어 신규사업을 하면서 홍콩법인을 활용해 200억~3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심도 받는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이와 관련해 "원료 구입 과정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별도 자금 형성을 지시받은 적도 없고, 알바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들기는 불가능한 마진 구조였다"며 "대표이사가 별도 자금 형성을 지시한 적도, 또 직원들이 그런 일을 실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모든 의혹과 혐의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다"며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탄크래커 기공식에 참석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호텔롯데의 연내 상장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해명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롯데그룹은 또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이 수사 대상과 혐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게 아니냐"는 항의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이 언론에 공표한 오너일가의 연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지목한 것이다.

롯데그룹 측은 앞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매년 3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을 계열사로부터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배당과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며, 부정하게 수령한 돈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2~13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그룹 정책본부 이일민 전무와 류제돈 전무를 소환해 조사한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며 언론에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선애 기자 lsa@

'특급 변호인단' 꾸린 롯데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 국내 1~4위 로펌 연합팀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이 대규모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맞대응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세종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보통 대기업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복수의 로펌이 변호에 나서지만, 상위 1~4위 로펌이 모두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다.


차동민 변호사


송광수 변호사

특수통 고검장·검찰총장 출신 배치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은 롯데그룹의 심장부인 정책본부를 담당한다. 업무 총괄은 물론 자금 흐름까지 관리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이번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특수수사에 잔뼈가 굵은 서울고검장 출신 차동민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고, 검찰총장을 역임한 송광수 변호사가 자문을 맡았다. 검찰도 정책본부가 롯데그룹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시사한 만큼, 치열한 물밑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태평양과 광장, 세종은 주요 계열사 방어에 나선다. 특히 롯데케미칼과 롯데홈쇼핑, 롯데건설은 신격호, 신동빈 부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해외 비자금 혐의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검찰은 다시 해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 롯데케미칼에서 일했던 그룹 정책본부 김현옥 법무팀장도 지원에 나선다.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면면도 화려하다. 롯데케미칼 사외이사에는 대검 차장 출신의 박용석 변호사가, 롯데홈쇼핑에는 전 서울동부지검장 한명관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내곡동 사저 특검팀'을 이끌며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상훈 대법관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좌영길 기자 jyg97@

'비자금 창구' 지목된 롯데케미칼, 왜?

작년 영업익 1.3조 그룹내 1위 알짜 계열사

이익 규모 가장 커…검찰 수사 대상에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롯데케미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그룹 내에서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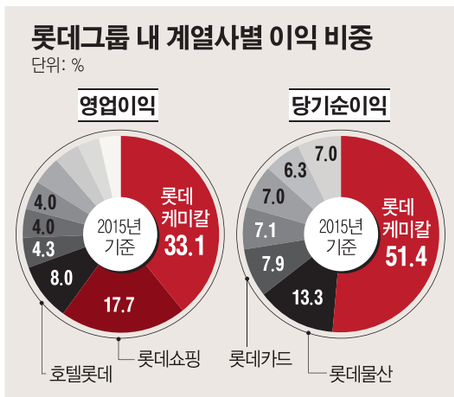
17일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이 거느리고 있는 국내 계열사 91곳에서 매출 규모는 롯데쇼핑이, 영업이익은 롯데케미칼이 가장 크다. 91개 계열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68조2833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66조7237억원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2014~2015년 각 계열사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2015년 기준으로 매출 1조원 클럽에 든 롯데그룹 계열사는 15곳이다. 이 가운데 롯데쇼핑이 16조1773억원으로 그룹 전체 매출의 23.7%를 차지했다. 롯데그룹 매출의 약 4분의 1이다. 두번째는 롯데케미칼로 8조4719억원의 매출을 올려 그룹 내 매출 비중 12.4%를 차지했다. 호텔롯데(4조3285억원·6.3%)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월등한 두각을 나타내 그룹 내 가장 알짜 회사로 꼽힌다. 매출 1위인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은 2013년 이후 하향세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7147억원으로 2014년(9934억원)보다 28%가량 감소했다.

롯데그룹 내 계열사별 이익 비중

단위: %



매출 2위인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은 2014년 3743억원에서 2015년 1조3357억원으로 356.8% 증가했다.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인 33.1%를 차지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703억원에 달해 그룹 전체 당기순이익의 51.4%를 기록했다.

지난해 롯데그룹 계열사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37곳(40.7%)에 달했다. 롯데쇼핑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3044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롯데그룹 계열사 중 9곳은 자본잠식 상태였고, 부채비율 400%를 넘는 고위험 기업군도 15곳이나 됐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웁니다!

• 2016년 6월 17일(금) 15:00 • 건설회관 대강당(2층)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Construction Associations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인세 인상’ 군불때는 조세재정硏

MB정부, 기업 투심 명목 3%P↓… 투자 안하고 유보금만 쌓아
야권 세율 개정안 추진… “경기회복 찬물” 기재부 여전히 반대
조세硏 “증세로 기업 해외이동 근거 없다… 세율 올려 더 걷자”

야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존‘절대 불가’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췄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추기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기업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불어나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주변 경쟁국이 법인세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1월 인사청문회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기재부의 조세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에 눈길을 끄는 권두칼럼을 실었다. 국내에서 권위 있는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인세율의 인상이 기업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다는 주장이 실증적 근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기업이 어디를 활동 근거지로 선택하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단지 법인세율이 3%포인트 올라갔다는 이유로 기업이 대거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큰일이라도 일어날 듯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연구의 예를 보기나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한 것을 예로 들고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조세수입을 늘려야 하는 난처한 처지의 과세당국은 이런저런 무리수로 불필요하게 납세자의 반발을 야기해 왔다”며 “그럴 바에야 아예 정직하게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밝혔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최근 한 언론사 기고에서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일본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지목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박대통령, 사정 후 개각 전망
환경·농림 장관 교체 가능성

새 당대표 친박계 뽑고 내각 개편
집권 4년차… 국정 동력 회복 노려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사정(査正)을 진행한 뒤 개각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는 등 총선 이후 힘이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대우조선과 롯데그룹 등 재계는 물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총선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집권 4년 차에 이뤄진 것으로, 과거 정권에서도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사정태풍이 휘몰아쳤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 통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등 각계에 긴장감을 심어주면서 레임덕 방지를 위해 사법기관을 활용하는 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 이후엔 인사를 통해 국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개각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청와대 안팎에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 앞선 ‘한여름 개각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8월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꾸리면 정부의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새누리당 의석분포로 봤을 때 새 당대표는 친박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새 지도부를 통해 당 장악력을 유지하고, 당이 안정화에 접어들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정부 개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주요 개각 대상으로는 ‘원년 멤버’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순위로 꼽힌다. 또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와 공무원 비위 등으로 감사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을 비롯해 성과가 저조한 부처 장관 등 중폭 이상 개각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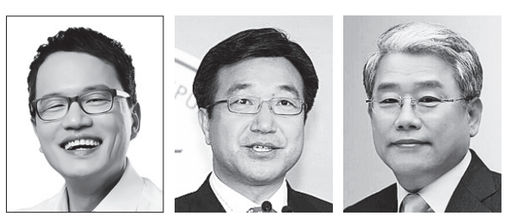
반면 윤성규·이동필 장관과 같은 원년 멤버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때 제기된 정무장관직 신설은, 최근 정무수석을 교체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의중 기자 zerg@

野 증세 시동…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로

오늘의 법안

박주민·윤호중 의원 등 발의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기 위한 야권의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매출 과세표준 기준으로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그동안 22%로 적용되던 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 의원과 윤호중〈가운데〉 의원은 16일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하다.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오른쪽〉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22%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2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기업에는 22%의 법인세를, 500억 원 초과 기업에 한해서는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인상분을 도출했다. 개정안을 토대로 비용 추계를 선정한 결과, 향후 5년간 22조5000억 원(연 평균 4조5000억 원)의 세금이 걷힌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윤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417개(전체기업의 0.14%)로 개정안 통과 시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힌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며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 조가 쌓이고 정부재정은 무려 200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은 악화하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 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권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법인세 인상안을 다시 꺼내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월급병기·업종별 차등화’ 제도개선 갑론을박
최저임금 제시안도 못꺼낸 勞經

노동계와 경영계가 ‘월급 병기·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첫 인상 요구안 제시가 불발됐다. 노사 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견도 크지만, 월급 병기나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서면으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휴 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4시간 가까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서로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오는 23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내년 최저임금 첫 인상 노사요구안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노사 양측은 첫 요구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제도개선 격론이 심화되면서 불발된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동계는 1만 원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노사 간 기싸움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달 28일 내 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논란만 키운 맞춤형보육
전업맘들 ‘가짜증빙’까지

주부, 구직활동 증명 ‘종일반’ 신청

#. 30개월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전업주부 최모(31) 씨는 얼마 전 어린이집으로부터 ‘종일반’ 신청을 위해 구직 증빙 서류를 떼올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 최 씨는 혹여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될까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인증 서류를 신청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업주부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가구가 종일반 이용을 위해 가짜 서류 증빙 등을 만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영아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의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문제는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을 제외하고는 스스로가 증빙 서류를 통해 종일반 이용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에서 허위 서류 제출을 종용하는 등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의 80%에 그쳐 보육교사의 임금이 줄어들고 보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0~2세 보육료를 6% 인상한 데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맞춤형 보육 영아가 전체의 20%에 불과해 총 보육료 규모는 지난해보다 4.2%(1083억 원) 많다는 입장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관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유일호 “경제활력 강화·일자리 창출 집중”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
“경제 3월 이후 나아지고 있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주요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상반기 우리 경제는 연초에 크게 부진했으나 3월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 개소세 인하 연장, 임시 공휴일 효과 등으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 부진도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며 “지난해부터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이 설비투자 위축 등 내수 부문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고, 특히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여건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및 영국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고용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고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농협, 오리온과 손잡고 고품질 제과 만든다

경남 밀양에 공장 설립

농협과 오리온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프리미엄 제과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한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와 오리온은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 협력 강화를 위해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대표이사, 오리온 허인철 부회장 등 양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지난해 9월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TF를 구성해 협력사업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농협경제지주가 51%, 오리온이 49%의 지분을 투자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농협경제지주는 합작법인에 국산농산물을 공급하고 오리온은 합작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의 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이 운영하게 될 식품공장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 농공단지에 들어서게 되며 올해 하반기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사업부지 1만1000평에 생산시설 7000평의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쌀·잡곡 등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제과류와 제과용 식품류 및 반가공품이 생산될 예정이다.

김덕현 기자 dhkim0715@

'메가쇼 2016' 킨텍스서 19일까지 열려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2016 시즌I'이 16일 경기 고양 대화동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이 참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홈퍼니싱·하우스웨어·라이프스타일·키친·푸드·센스&디자인 등 6개 테마 800부스 규모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선 다양한 소비재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jak@

"시동 자꾸 꺼져" 라세티·올란도 리콜

2008~2010년 제작 라세티 5756대
엔진제어장치 고정 부품 제작결함
올란도 6만8826대는 시동 버튼 문제
투싼도 후드 잠금 결함 6만2319대

한국지엠 라세티와 올란도, 현대자동차 투싼 등 3개 차종 13만6901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라세티 프리미어는 엔진제어장치를 고정하는 부품의 제작 결함으로 엔진제어장치와 연결된 엔진 배선의 접촉 불량이 발생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08년 7월 24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라세티 프리미어 5756대다.

올란도는 시동 버튼을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심한 요철 등 험로 주행 시 차량 진동에 의해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제작된 올란도 6만8826대다. 라세티 프리미어와 올란도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투싼은 후드 2차 잠금장치의 제작 결함으로 후드걸쇠 장치가 열린 상태로 주행할 경우 2차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후드가 열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제작된 투싼 6만231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멜론의 '자동결제 요금 인상' 꼼수

2013년 이용자 동의 없이 올려받아
공정위 "선택 결제창 제공" 시정명령
멜론 불복 소송에… 법원, 패소 판결

인터넷 음원을 제공하는 '멜론'이 자동결제상품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을 올려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멜론은 2013년 7월부터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클럽 등 6개의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40~100%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멜론은 기존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3차례 가격인상 사실을 알렸고,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도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했다. 하지만 기존 고객들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요금을 내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 7월 한 달 동안 136만9000여명의 고객들이 114억5000만여원을 냈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앞으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멜론은 이에 불복해 2014년 소송을 냈다.

멜론은 "계약 내용 변경 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으로 동의를 받으면 과도한 거래비용이 발생해 음악 산업에 손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멜론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하게 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의 청약의사 확인이 필요한 핵심 사항"이라며 "소비자 청약의사 확인 대상인 사항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엠넷 운영사 CJ E&M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달 27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파라과이로 도주 주가조작범… 인터폴 수배 국내 송환

1만4000회 조작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총 1만4000회에 걸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제약 대표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 C제약 전 대표 A(64)씨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외에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2010년 10월~2011년 3월 C제약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 1만4660회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방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1년 11월 남미 파라과이로 도주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한 뒤 지난해 11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 결과 파라과이 경찰은 지난 2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을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134억 횡령' 박재천 포스틸 회장 항소심서 감형

가중 처벌 안해… 징역 5년서 3년으로



포스코와의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사진·60) 코스틸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 상태였던 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형을 낮춘 것은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05~2009년의 업무상 횡령과 2011~2012년의 업무상 횡령 사이에는 2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고, 금원의 인출경위와 사용처 등을 종합해볼 때 단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횡령 금액도 1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틸홀딩스와 코스틸 대표자인 박 회장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임직원을 동원하고 거래관계 상 우월적 지위로 거래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스틸홀딩스와 코스틸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존 리 옥시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존 리(48·현 구글코리아 대표) 전 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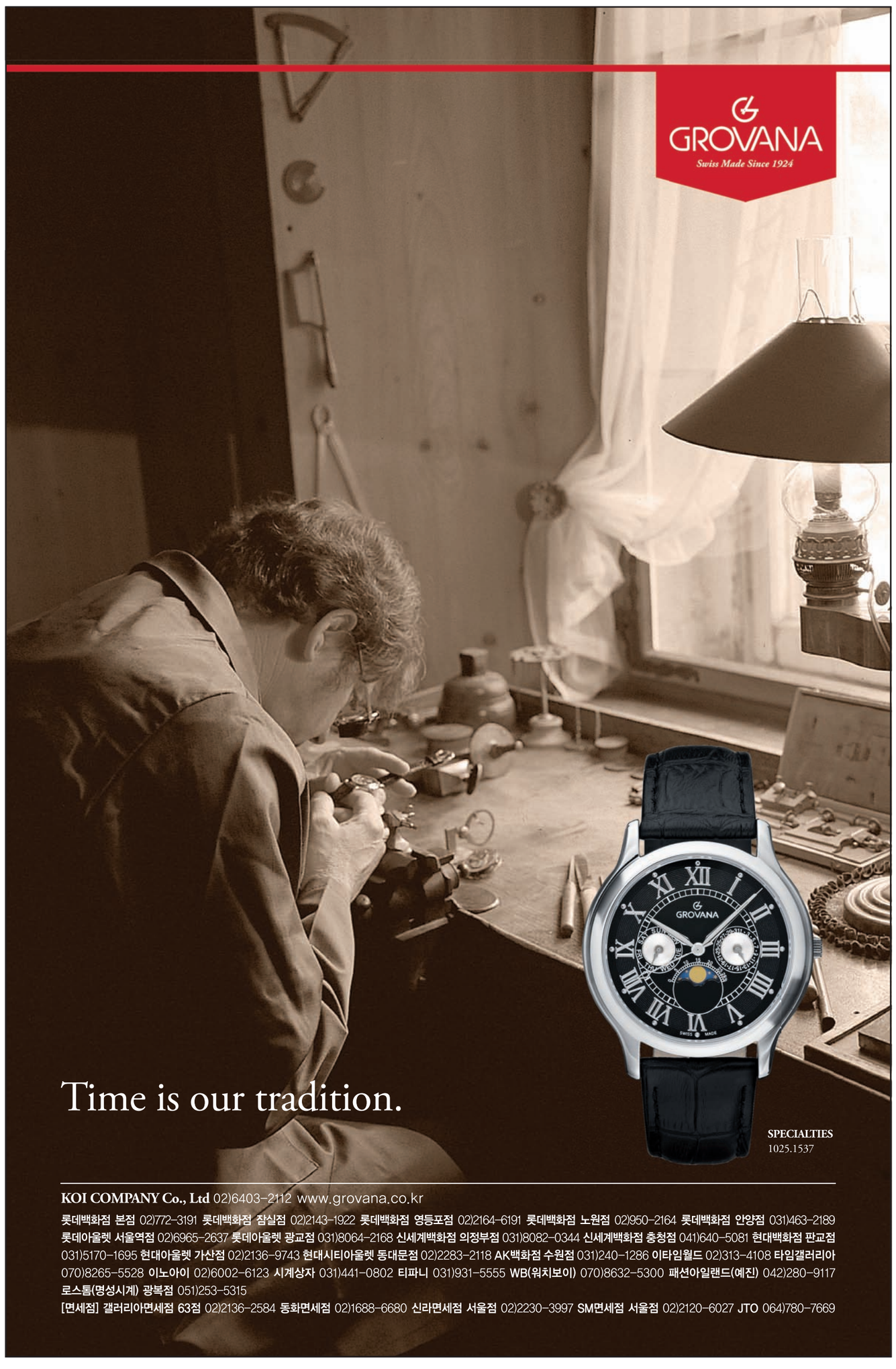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에 들어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표기해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메밀꽃 필 무렵…



16일 강원 춘천시 서면 들녘에 메밀꽃이 소금을 뿌려놓은 듯 하얗게 피어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산은 구조조정팀은 '구조조정' 열외?

대우조선 부실감사에 책임 여론 고조
감사원서도 '인사자료 통보' 교체 압박
현대상선·한진해운 현안해결 앞두고
금융위 "교체 계획 없다" 재신임 의지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발표 이후 산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산은 일부 인사가 '인사자료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구조조정 라인이 교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산은의 구조조정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명백한 이유 없이 구조조정 실무자를 교체할 경우 조선사 구조조정을 비롯해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산은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한 이후 산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책은행(산은)이 조선사를 비롯한 여러 부실회사의 채권단으로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도 산은의 구조조정 기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 토론회를 통해 "산은과 같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취약해졌다"며 "산은이 저성장기 선제적 구조조정의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산은 위주의 구조조정이 있는 이상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은 힘들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에 통보한 상황이다. 이번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는 산은에서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자료 통보로 산은의 구조조정 라인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인사자료 통보는 향후 인사 시 활용처로 쓰일 뿐, 당장의 인사 문책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사자료 통보가 현재 산은의 구조조정 라인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산은 구조조정 인력은 관련 전문성이 높다. 당장 교체하면 관련 후폭풍이 오히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은은 현재 진행 중인 해운사 구조조정을 비롯해 향후 조선사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다음 주까지 자구계획에 대한 세부 일정을 확인받고,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대상선 해운동맹 편입과 함께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 등의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산은을 재신임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산은 감사 결과에 대해 "그럼에도 정책금융은 필요하며, 구조조정 부문에서 산은만큼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찾기 어렵다"며 "산은에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탁상공론적 감사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입력 누락을 중대한 결함으로 침소봉대하고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며 "서별관회의 4.2조 원 지원 당사자의 책임은 외면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중앙보훈병원 찾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애국지사를 격려하고, 이정열 병원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수은, ERM과 인니 발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수출입은행은 16일 ERM Korea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인도네시아 발전시장 동향과 환경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1971년 영국에서 설립된 ERM은 40여 개국에 160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세계1위의 환경컨설팅회사로, 주요 사업범위는 석유·가스, 광산, 전력 및 화학공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019년까지 35GW의 발전소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기대되는 한국 기업의 발전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금융위 '新 실손보험' 개편… 어떻게 바뀌나

과잉진료 항목은 특약으로 추가… 가입자 이동은 의문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으로 상품구조 개편안을 내놨지만 3000여만 명의 기존 가입자들이 신상품으로 원활히 이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획일적인 표준형에서 '기본형+특약 추가'로 개편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진료는 저렴한 보험료의 기본형으로 보장하고, 과잉진료가 잦은 도수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은 특약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기본형만 가입하면 기존보다 최대 40%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현 40대 남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15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신상품 기본형에 가입하면 8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근골격계(4000원)나 수액주사치료(500원) 등 별도 특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다.

금융위는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대폭 내려가는 만큼, 기존 가입자의 신상품 이동은 2~3년 내 완료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16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실손보험 계약 유지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되는 신상품이 나올 시 2~3년 안에 가입자들이 갈아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계약 유지율은 1년차 90.5%, 2년차 78.7%, 3년차 68.6%, 4년차 58.6%, 5년차 48.5% 등으로 가입 유지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금융위는 기존 가입자들 상당수가 저렴한 보험료를 찾아 신상품 기본형으로 이동하면, 기존 상품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올라 신상품 가입 유인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형으로 가입시 보험료 40% 저렴
2~3년내에 고객 이동 완료 관측했지만
'전액보장' 기존고객 옮길 메리트 없어
업계 "비급여 항목 표준화 먼저" 촉구

하지만 현 실손상품 가입자인 3200만 명 모두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데엔 여러 제약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신상품 '특약' 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약으로 분리된 근골격계나 수액주사 치료 쪽에 과잉의료가 몰리면,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의료가 잦은 진료를 특약화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약된 항목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그만큼 계속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가입자는 신상품으로의 전환 유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9년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은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받는데 굳이 신상품으로 이동할 유인이 있겠냐"며 "괜히 신상품으로 전환하려다 건강 악화 등 문제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약 분리하는 방식의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선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에서도 비급여 진료 항목 표준화 등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로 항목 표준화가 안 돼 과잉진료를 부추겨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은 "실손보험이 나쁜 보험이 된 것은 비급여 과잉진료 때문"이라며 "상품구조는 개선하면서 비급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고, 비급여 문제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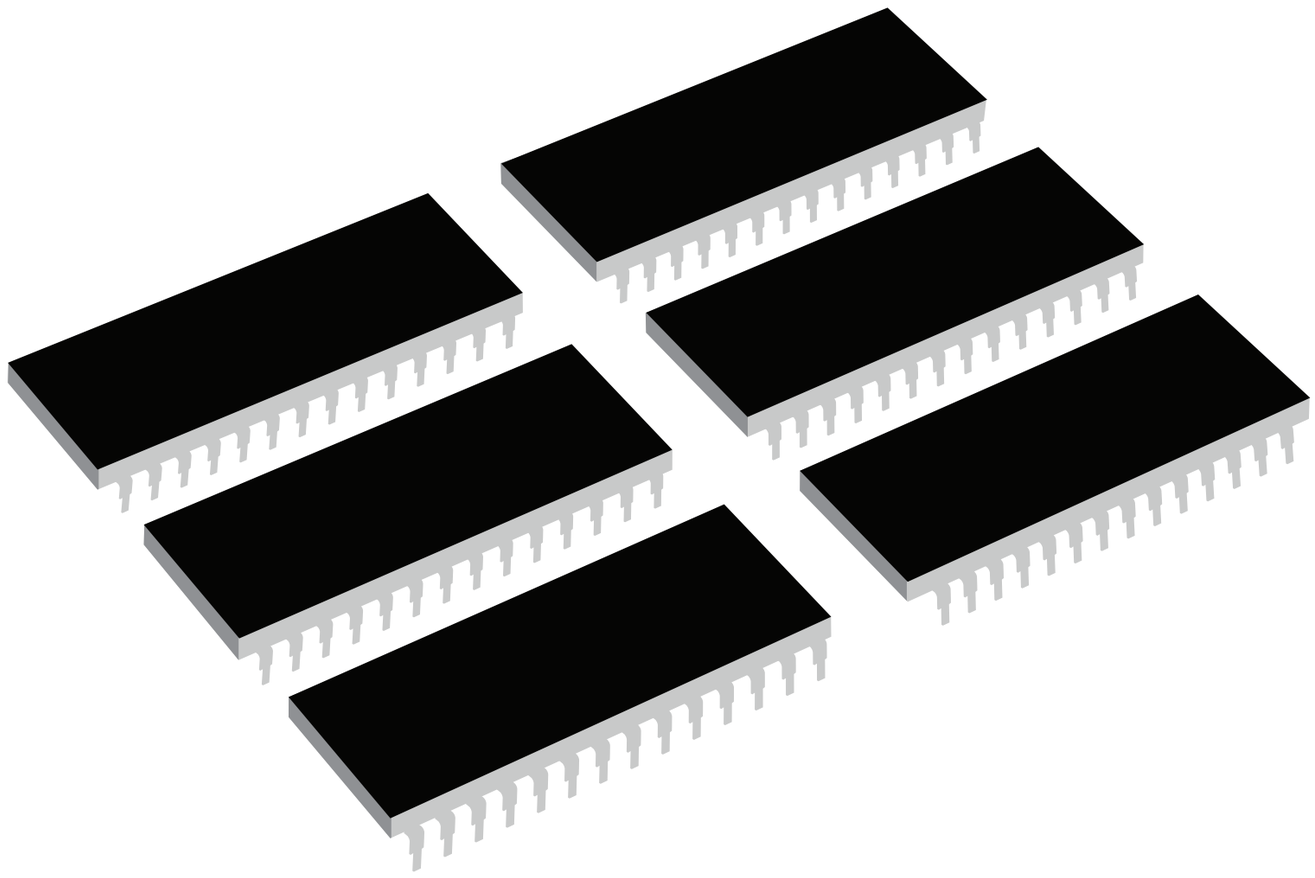
박규준 기자 abc84@

현행 실손보험 문제점

과도한 상품표준화 → 소비자선택권 제약 →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유발 → 손해율 급등 → 보험료 인상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





이것은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를 두고
세계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소재 핵심 기술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술로
내일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해내겠습니다 OK! SK

SK

삼성전자 "클라우드 강화" 해외 M&A 속도

美 클라우드 서비스사 조이언트 인수 SW경쟁력 확보
2012년 엠스팟·2014년 프린터온 등 시장 주도권 잡기

삼성전자가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클라우드 관련 해외업체를 연이어 인수하며 인프라·서비스·콘텐츠 등 전방위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스토리지, 서버 등 인프라 운영과 최적화 기술에 강점을 지닌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조이언트를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폰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물인터넷(IoT) 확산으로 늘어나는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삼성의 대표 서비스 '삼성페이'와 'S헬스', '삼성 녹스' 등을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위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2012년 5월 미국 클라우드 콘텐츠 서비스업체 '엠스팟' 인수부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엠스팟을 인수했다. 같은 해 7월 영국 CSR의 모바일 부문을 인수하며 모바일용 무선 연결기술 확보에 나섰다.

2014년 5월에는 애플리케이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앱 서비스 개발업체 '셀비'의 인적자산을 인수했고, 그해 9월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업체 '프린터온'을 사들였다. 프린터온은 업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업체로,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프린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개인·기업용 클라우드 서버 보안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프린터온 인수로 모바일 클라우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정보보안 관련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 해외 클라우드 업체 M&A

2012년	5월	미국 클라우드 콘텐츠 서비스업체 '엠스팟' 인수
	7월	영국 CSR의 모바일 부문 인수
2014년	5월	미국 앱 서비스 개발업체 '셀비' 인적자산 인수
	9월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프린터온'
2016년	2월	오라클과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협력 강화
	6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조이언트' 인수

올 2월에는 오라클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클라우드 기반 최신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용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오라클은 시스템통합(SI) 서비스 업체와 협력해 기업들이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IT 인프라를 현대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역량을 키우는 이유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화된 생활방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특히 삼성전자가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한 IoT 서비스가 상용화됐고 모든 일상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만물인터넷(IoE) 시대도 시작단계에 진입한 만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내부 역량만으로 경쟁력을 키웠다면 지금은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해외기업 M&A(인수합병)를 통해 성장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역시 콘텐츠와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인프라 업체까지 인수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脫통신' 이통3사, AI 로봇 상용화

KT '오토' 올 출시… SKT '브이요'·LGU+ '지보' 등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 로봇'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성장 한계에 직면한 통신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KT는 인공지능 로봇 '오토(OTTO)'를 연내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토'는 음성 대화가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홈 로봇이다.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 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 2016에서 최초 공개됐다. 이 로봇은 이용자의 음성명령을 스스로 학습해 인식률을 개선하며 KT 유선 인프라와 연계한 영상통화, 보안관제, 가전 제어에 활용할 수 있다.

'오토'는 로봇 형태의 홈 사물인터넷(IoT) 허브로 홈 IoT 기기들을 엮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도 최근 세계적 로봇 석학 가이 호프만 교수(코넬대)와 함께 인공지능 스마트홈 로봇 '브이요(Vyo·사진)'를 공개했다. 현미경 모양으로 생긴 '브이요'는 내장 렌즈를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홈의 다양한 기기를 통합 제어할 수 있다.

'브이요'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성 기능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기존 스마트홈 솔루션과 로봇은 상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매번 같은 알람을 울리지만, '브이요'는 위급 또는 평시 상황에 따라 알람 방식을 달리한다.

LG유플러스는 미국 IT벤처기업인 지보와 함께 인공지능 로봇 '지보(JIBO)'를 개발 중이다. '지보'는 지능은 물론 감성까지 갖춘 소셜 홈 로봇으로, 내년 초 미국에서 먼저 상용화될 전망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생산직도 호봉제 없애고 성과급 'LG이노텍의 인사실험'

"글로벌 위기 극복" 노사 한뜻
공정평가위 신설 객관성 확보

LG이노텍이 생산직 현장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사무·기술직에 적용하고 있는 성과·역량 기반 인사제도를 확대 도입했다.

LG이노텍은 모든 현장직의 △임금 △평가 △진급 △교육 체계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새롭게 바꿨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년여간 노동조합(위원장 김동의)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부 기준까지 최종 합의했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기존의 연공적인 호봉제 체제로는 변화된 제조 환경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에 회사 측과 노조 측이 인식을 같이한 데 따른 것이다. 최종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회사 측과 노조 측은 수십 차례의 토론과 세미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갔다.

LG이노텍이 현장직 임금에 연공서열 성격이 강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존 사무·기술직에 적용했던 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현장직 사원에게도 근속 연수가 아닌 성과와 역량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우수 성과자에게 기본 임금 외에 '성과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혁신활동 우수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수시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 창출 즉시 보상한다. 팀워크가 중요한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위 10% 우수 조직에는 '우수 라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성과와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이에 맞춰 인사평가도 달라졌다.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LG이노텍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현장 팀장과 임원이 참여하는 '공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직원의 생산성, 품질, 아이디어 제안 실적 등을 분석해 조직 목표 달성 기여도를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이노텍은 '발탁 진급제'도 신설했다.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직원은 빨리 성장시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사 관계자는 "성과·역량 기반 인사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선행될 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직원들이 창출하는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징' 진출 신사업 팔 걷은 이윤태 사장

계열사 협업 신성장동력 사활
올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사진〉이 중장기적 신성장동력 확보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조직 재정비 작업과 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와 협력해 인쇄회로기판(PCB) 없이 패키징이 가능하게 하는 팬아웃웨이퍼레벨패키지(FOWLP)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 양산시점이나 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FOWLP 기술은 더 얇은 폼팩터에 더 높은 전력효율과 더 빠른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PCB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얇은 두께와 우수한 방열기능 등이 장점이다.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신제품에 이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 칩을 탑재하기로 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 업체인 TSMC발 FOWLP 등장으로 패키징 사업을 하는 삼성전기의 ACI(기판)사업부에 대한 중장기적인 우려가 시장에 팽배했었다. 하지만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불리는 이윤태 사장이 삼성전자와 협업해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뛰어들며 불안감을 잠식시켰다. 패키지용 PCB 사업 매출 감소세 보완 및 상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업뿐 아니라 이 사장은 장기적으로 삼성전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오랜 기간 수혜를 입었지만 삼성전자가 신제품 부품 원가절감에 나서면서 수혜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사업 추진을 위한 현금 확보도 주목된다. 미래에셋대우 증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조1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도 2.6%(6800억 원 수준) 보유하는 등 자동차, IoT, 웨어러블 사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박기범 BNK증권 연구원은 "그룹 전장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통해 올해 매출은 6조3050억 원, 영업이익은 198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구조조정 한창인데… 대우조선 수주잔량 19개월 연속 세계 1위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19개월 연속으로 수주잔량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17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발간한 '세계 조선소 모니터'6월호에 따르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의 수주잔량은 5월 말 기준 747만8000CGT(표준화물선 환산t수, 111척)로 전 세계 조선소 중 가장 많았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2014년 11월부터 19개월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439만7000CGT, 81척)이며, 3위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433만5000CGT, 91척)로 나타났다.

중국 상하이 와이가오차오조선소(311만4000CGT, 78척)는 4위로 지난 4월에 비해 한 단계 올라섰고,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287만2000CGT, 71척)는 5위로 밀려났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1위, 대우조선해양이 2위, 일본 이마바리조선이 3위, 삼성중공업이 4위의 수주 잔량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조선업 침체로 국내업체들이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 짓는 선박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32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기준가는 지난달에 전달 대비 150만 달러 떨어진 9000만 달러로 2013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KT, 사내 동호회 재능기부로 사회공헌



KT 사내 밴드 동호회 '두드림 밴드'와 '색동회'는 16일 전주 효사랑 요양병원과 고양 흰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눔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밴드 공연과 함께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색소폰 연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노래자랑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 KT

한진해운 "용선료 30% 인하 7800억 깎겠다"

3년 6개월간 2조6000억
22개 선주사와 2차 협상 중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 목표치로 30%를 공식화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9개국 22개 선주사들로부터 빌린 60척의 선박(컨테이너선 47척, 벌크선 13척)에 대한 향후 3년 6개월 동안 용선료 30%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진해운이 향후 3년 6개월간 지불해야 하는 용선료는 2조6000억 원가량이다. 이 중 7800억 원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용선료 협상을 진행한 현대상선과 같이 인하분의 절반은 주식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경영정상화 이후 분할 상환하는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협상단을 구성해 용선료 조정 협상에 착수한 한진해운은 22개의 선주사들을 모두 만나 1차 협상을 마쳤으며 현재 2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주요 협상 대상은 세계 최대 선주사인 캐나다 시스팬과 그리스 다나오스, 독일 콘티 등이다. 이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용선료 조정을 위해 직접 나섰다.

조 회장은 15일 오전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선주사이자 가장 완강한 입장을 보였던 시스팬의 게리 왕 회장(CEO)을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 초청,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용선료 조정안을 협의했다.

다만 한진해운이 용선료 조정 목표를 최대 30%로 제시했지만 조정폭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대상선도 당초 30% 인하를 목표로 삼았으나 21% 가량 낮추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공기청정기 너마저…" 유해물질 논란

쿠쿠·대유위니아 "OIT 검출 무상교체"… 소비자 불안 확대

생활가전업계에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연결되며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쿠쿠전자와 대유위니아는 유해물질로 지목된 옥타이리소시아콜론(OIT)이 자사의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OIT 성분이 없는 필터로 무상 교체한다고 밝혔다.

OIT는 다수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계열의 성분으로 2014년 환경부로부터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단, 어느 정도의 양이 문제가 되는지, 필터를 통해서도 위험한지 등의 인체유해성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관련 업체들은 해당 물질이 함유된 것은 사실이나,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쿠쿠전자는 "필터에 코팅된 OIT는 고체화되어 있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어렵고 함유량도 환경부 허용 기준(1%)의 10분의 1인 0.1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코웨이, 교원 등 주요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필터에서 OIT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논란과 선을 긋고 있다. 이들은 연 1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고되는 공기청정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사안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필터는 다국적 기업인 3M이 제조한 제품이다. 특히 쿠쿠전자 측은 "3M으로부터 OIT가 함유된 필터를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가중시켜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유 기자 thec98@

“발효김치 우수성 알려 수출 활로”…김치 종주국 위상 찾는다

‘中 국제식품안전·혁신기술 전람회’ 20~22일 베이징 국제전람센터서

세계김치硏·대한민국김치協 손잡고 한국관 열고 21일 식품문화 교류회도

해외 바이어·관람객과 비즈니스 상담

“한국 김치 맛·안전성 계속 홍보할 것”



값싼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식탁을 점령한 가운데 산·연이 공조해 종주국 위상 찾기에 나섰다. 수출길이 열린 중국에 다양한 김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원조의 맛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세계김치연구소와 대한민국김치협회는 20~22일 중국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리는 ‘2016 중국국제식품안전 및 혁신기술전람회’(이하 전람회)에서 한국관을 공동 구성한다. 국내 김치 업체들의 대(對) 중국 수출 지원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절임채소 검역기준 완화에 따라 한국김치 수출을 위해 손잡았다.

올해 7회째인 전람회는 중국 공산당이 2009년 잇따른 불량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무원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을 신설하고 중국 행정당국과 합동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람회에서 한국관은 108㎡(약 33평) 규모로 열린다. 김치상품 전시와 세미나 및 상담 공간을 구성해 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참가사는 김치연구소와 김치협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성식품, 풍미식품㈜, ㈜대일, (유)야생초 등 4곳이다. 이들은 전람회 동안 중국 식품유통 바이어, 전자상거래 관계자와 비즈니스 상담을 펼칠 계획이다.

김치연구소와 김치협회는 한국관 특별행사로 21일 오전 한·중 식품문화 교류회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연구소 이미애 박사와 중국요리협회 펑언위엔 부회장이 ‘채소발효 식품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식품문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박완수 김치연구소 소장은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발효김치의 위생 및 안전성과 과학적 효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미나 및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발효김치의 건강 기능성과 함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는 한국김치의 안전성을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식 김치협회 전무는 “중국인의 소득 증대와 한류 영향으로 한국김치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발효김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출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이번 김치연구소와의 공조로 학술적으로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김치의 맛을 알려 대 중국 수출의 활로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성·풍미·야생초·대일 4곳, 김치 차별화로 글로벌시장 도전장

한성, 제조방법에 따라 국내외 특허 24건 보유

깻잎양배추말이·미니롤보쌈 등 특급호텔 공급

풍미, 갓김치·열무얼갈이 등 20여종 김치 생산

자체 연구소 설립…칼슘강화상품 등 특허 20건

야생초, 유산균 저염 김치 ‘닥터아사한’ 선보여

발효영양 풍부하고 소화흡수력 높은 기능성 김치

대일, 작년 11월 대만 시작으로 캐나다도 수출

대상FNF 협력업체로 2018년 매출 100억 목표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리는 ‘2016 중국국제식품안전 및 혁신기술전람회’(이하 전람회)에 국내 김치업체 4곳이 참가한다. ㈜한성식품과 풍미식품㈜, (유)야생초, ㈜대일 등 4사는 이번 전람회에서 저마다의 특색 있는 김치를 선보이며 해외 수출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1986년 창업한 한성식품은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부산아시안게임, 2003대구유니버시아드,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 행사에서 김치를 독점 공급한 업체다.

국내산 100%의 우리농산물만으로 상품을 생산하며 현재 300명의 근무인원과 일평균 80여톤의 생상능력을 보유했다. 3개 공장 운영으로 연매출 400억원이 넘는 김치전문 중견기업이다.

한성식품은 김치 제조 방법에 대한 24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기능성 이색 김치인 깻잎양배추말이, 미니롤보쌈, 미역김치 등은 전국 48개 특급호텔에 공급하는 효자상품이다.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는 2007년 김치명인 1호에 이어 2012년 식품명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02년 철탑산업훈장, 2008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대표가 개발한 차별화된 특허김치는 웰빙과 퓨전, 저염 트렌드로 2003년 싱가포르국제발명전시회, 2005년 대만국제발명전 등에서 수상 실적을 올렸다. 미래형 상품인 동결건조김치는 최근 국가 신성장동력 고부가식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1985년 설립된 풍미식품은 포기김치와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깍두기, 열무얼갈이 등 20여종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2000여평 규모의 현대식 사옥의 김치제조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을 도입해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는다.

2001년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난각을 소재로 한 칼슘 제조법을 개발한 바 있다. 이를 김치에 첨가해 칼슘 강화 상품 등 20여가지의 특허를 출원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기능성 김치 및 별미 장류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야생초는 유산균 저염김치 닥터아사한을 이번 전람회에 선보인다. 아사한은 순우리말로 새로움을 뜻하는 ‘아사’와 한식의 ‘한’을 합친 상품명이다. 야생초는 아사한이 세계 최초로 천연 식물성 유산균을 통해 소금 없는 환경에서 김치 발효에 성공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사측에 따르면 아사한은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제품으로 살아있는 식물성 유산균이 장내에 정착하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성 김치다. 대장균군 등 유해미생물이 없는데, 이는 살아있는 유산균에 의해 단 한 마리의 유해미생물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사한은 발효영양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력이 높아 식물성 유산균이 유해 성분은 제거하고 폴리페놀, 아미노산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과다한 소금 섭취가 일으키는 노화, 질병, 비만 등을 고려한 저염 식품으로 미세 분말된 약초가 수용성 식이섬유와 약성성분을 김치에 더해준다고 사측은 전했다.

대일은 지속 성장하는 수출형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2009년 종업원 6명, 연매출 4억원의 개인사업자 자가제조업으로 출발해 2013년 9월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종업원 41명, 연매출 55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식품 대기업인 대상FNF의 협력업체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2018년 연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대일은 내수시장에서 종가집을 비롯한 협력업체들과의 점진적인 생산, 매출 증대로 회사 운영의 안정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수출을 위한 판로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대만을 시작으로 캐나다 수출도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전람회와 8월 미식전 결과에 따라 중국 완다그룹에서 운영하는 완대백화점 내 한국김치 전용 상설매장 개설이 판가름 난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운영사무국 ☎02-360-4538 www.all-con.co.kr

국토교통부 SPACEN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경제신문

공간정보 특성화고 취업프로젝트

※ 공간정보 특성화고 취업프로젝트 란?
공간정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바로
실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선착순 200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홈페이지(www.spacenjob.co.kr) 접속 후 학생들에게 전할 응원 메세지 입력
참여기간 2016.5.4 ~ 6.24
선발인원 총 220명 (선착순 200명 외 응원상 20명)
※경품 내역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참가학교 SDHS 서울디지텍고등학교 /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참여기업 Gaia3D / C2L equipment (주) 씨투엘이큅먼트 / 올포랜드 / 웨이버스 / UBIST 유비스티 / EWOOTEC / GEOSTORY / ChumDan / KBIZ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 KSGT (주)한국에스지티

재건축 훈풍에 다시 뛰는 은마아파트

95.18㎡ 10억1000만원 거래
최근 한달 만에 1억 넘게 올라
'신반포자이' 등 흥행 성공 영향
1분기 주춤… 다시 치솟는 추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훈풍을 타고 다시 살아났다. 2012년 8억 원 시세가 붕괴된 이래 지난해 하반기 10억 원대 거래가 반짝 살아났던 은마아파트는 올해 재건축 붐을 타고 다시 가격이 치솟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95.18㎡는 지난 3월 9억1000만 원에 거래되다 4월 10억1000만 원으로 훌쩍 뛰었다. 한 달 만에 1억 원이 뛴 셈이다. 94.76㎡는 같은 기간 8억9000만 원에서 10억2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가장 낮은 거래가격도 9억 원이다.

4분기 들어 전용 91~95㎡ 타입에서 이뤄진 30여 건의 거래 중 10억 원대로 거래된 건수는 이날 기준 모두 17건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은마아파트는 중형 면적인 전용 91~95㎡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작년 1분기에는 대부분의 주택형이 8억 원대로 거래돼 9억 원대 거래는 손에 꼽힐 만큼 찾기 어려웠다. 2분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2년 8억 원대 시세가 붕괴됐던 은마아파트는 2014년 2분기부터 가격을 회복하며 비슷한 시세로만 거래를 이어왔다.

이 단지의 작년 상반기 거래 건수는 119건으로 전년 동기(62건) 거래량의 2배에 육박하고, 전년 전체 거래량(131건)의 91% 수준에 달했지만 가격은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3분기 들어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는 전체 거래 건수 중 절반이 10억 원대 매매가격을 형성했다. 올해 1월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자이' 등의 분양을 앞두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 집값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김지연 리얼투데이 컨텐츠본부 실장은 "지난 1분기에는 여신 심의를 강화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앞두고 시장이 얼어붙어 주요 아파트들의 거래가격이 다소 떨어지거나 보합을 이뤘다"며 "2분기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고분양가에도 성공적으로 결과를 낸 데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가격에 탄력을 받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마아파트는 계절적 비수기와 주택시장 불확실성으로 올해 초반 가격이 다시 둔화됐지만 2분기에 들어서면서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특히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뛰기 시작한 4월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훈풍이 불어닥친 시점이다.

은마아파트는 44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인 데다 교육·교통·편의시설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 강남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2002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뒤 2010년 안전진단을 거쳤지만 이후 각종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2018년에 시행에 들어가는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은마아파트 역시 다른 재건축 단지들처럼 향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2분기 서울 분양권 거래량 최대

2006년 조사 이후… 이달 말까지 2000건 넘을 듯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급증 추세

서울 분양권 거래량이 MB정부에서 5년이 걸린 기록을 박근혜 정부는 불과 4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양권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간 매년 1~5월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량은 총 60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MB정부 집권 5년 1~5월의 분양권 거래량을 합친 4132건보다 46.4% 많은 수치다.

특히 분양권 전매 완화 대책 대부분이 MB정부 시절 쏟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거래량 폭등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에 와서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권 거래는 크게 증가해 올해 2분기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이미 2013년, 2014년 연간 거래량을 넘어섰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2분기부터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분기별로 보면 △2015년 1분기 815건 △2015년 2분기 1526건 △2015년 3분기 1065건 △2015년 4분기 1298건 △2016년 1분기 1409건 △2016년 2분기 1672건 등이다. 2013년의 경우 한 해 동안의 거래량이 1477건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올 2분기 분양권 거래량은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 분기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6월말까지 거래량이 포함되면 2분기 거래량은 2000건 이상의 기록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서울 분양권 거래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분기별 최대 수준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초저금리시대' 토지·수익형 부동산에 돈 몰린다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
최고 9204대 1 경쟁률 '청약돌풍'
당첨발표 하루 만에 수천만원 웃돈

"수익률 떨어졌지만 은행보다 낫다"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가 0.29%↑
서울 3.3㎡당 1000만원대 재진입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을 떠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 토지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쏠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뜨겁다.

LH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 6만4350명이 몰렸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총 177필지를 공급해 평균 경쟁률 364대 1을 기록했다. 일부 필지에는 무려 9204명이 몰리며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용지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에는 원주기업도시가 선보인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5필지 공급에 경쟁률이 최고 9395대 1에 달했다. 가장 낮은 최저 경쟁률마저 2377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단독주택용지는 '거주'와 '임대소득'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 은퇴세대를 비롯해 재테크족에게도 인기가 높다. 청약 당첨 시 입지가 좋을 경우 '억원대'의 웃돈을 받고 팔기도 해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당첨자 발표 하루 뒤인 16일 일부 필지에 대해 3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은 땅뿐만이 아니다.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수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매가격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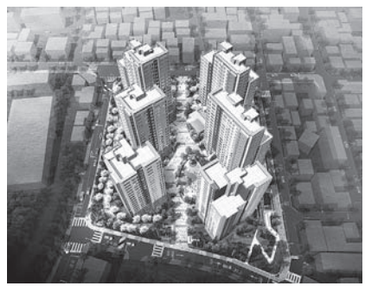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9% 상승했다.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1000만 원을 기록,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원대에 진입했다. 반면 오피스텔 수익률은 2007년 6.92%로 고점을 찍은 이후 9년 연속 하락 중이다. 올 상반기 평균 오피스텔 수익률은 5.62%로 하반기는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했지만 은행예금 금리 대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전히 유동 자금을 활용할 만한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해 투자자들의 발길이 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피스텔 단지도 상당수 발견된다.

정경진 기자 jungkj@

'e편한세상 부천심곡' 143가구 일반분양

노후주택 밀집지역 신규공급 주목
인근 지하철 1·7호선 여의도 30분대


고려개발 'e편한세상 부천심곡' 조감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1구역 일대에 'e편한세상 부천심곡'이 이달에 분양한다. 우수한 교육여건,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더불어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천 심곡본동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e편한세상 부천심곡은 지하 3층~지상 19층,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총 354가구의 단지로, 주로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 16가구 △74㎡ 68가구 △84㎡ 59가구 총 14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부천시 심곡본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심곡본동의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79.26%를 차지하고 있어 부천시 전체 노후 주택 비율인 59.12%에 비해 약 20%포인트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공급된 아파트는 80가구에 불과하다. 신도시로 개발됐던 중동도 노후 주택이 86.89%에 달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고, 이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춘의역 이용이 편리해 서울권으로의 이동이 빠르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부천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로, 부일로 등의 도로가 인접해 있어 서울권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한편 고려개발 'e편한세상 부천심곡'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05번길 62 일대에 6월 중 개관될 예정이며 입주는 2018년 예정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읽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보인다!

경매 신의 한 수

이성용 지음 | 260쪽 | 올컬러 | 14,000원

《경매의 신》《월세의 신》《부동산의 신》 저자의 최신작!

경매 투자의 알짜 기술과 꼭 피해야 할 위험요소

만화 사례로 쉽고 재미있게 끝내기

2016년,
경매의 神과 함께
부자 좀 되어봅시다!

경매로 부자 되기 열망 지수 테스트

1. 빌라 초단타경매 환금전략을 알고 싶다 ☐ Yes ☐ No
2. 반값 낙찰 후 명도할 수 있는 모델을 알고 싶다 ☐ Yes ☐ No
3. 경매 물건에 미납관리비가 많을 때 대처법을 알고 싶다 ☐ Yes ☐ No
4. 건물만 경매로 나왔을 때 수익 올리는 법이 궁금하다 ☐ Yes ☐ No
5. 땅만 경매로 나왔을 때 수익 올리는 법이 궁금하다 ☐ Yes ☐ No

Yes가 1개 이상 나왔다면?
처방! 당신에게 이 책이 시급하다!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韓日 테마파크 '상하이 디즈니' 덕 볼까

한해 방문객 1000만명 이상 예상

유니버설재팬·하우스텐보스 등

비교 호기심 방문객 일본 찾을 듯

韓 'K-컬처밸리'도 동반 수혜 기대

홍콩 디즈니랜드는 역풍 우려



아시아 3개국의 주요 테마파크 현황
(입장료는 성인 기준)

국가	테마파크	입장객수 (2015년)	1일 자유이용권
중국	상하이디즈니랜드	–	약 8만9000원
	홍콩디즈니랜드	680만명	약 8만1420원
한국	에버랜드	742.3만명	5만2000원
	K-컬처밸리(예정)	–	–
일본	도쿄디즈니랜드	1660만명	약 8만4000원
	USJ	1390만명	약 8만4000원

총 공사비 55억 달러(약 6조6000억 원), 공사기간 5년. 1990년대 말부터 추진해온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16일(현지시간) 드디어 개장하면서 아시아 테마파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날 개장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 미국 밖에서 문을 여는 네 번째 디즈니랜드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 이어 세 번째인 데다 규모 면에서나 최첨단 볼거리 면에서도 훨씬 웅장한 만큼 20억 아시아 중산층 고객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 일본 홍콩 테마파크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픈 기념 행사에서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어로 "꿈이 이루어졌다"며 감회를 밝히고 "(상하이 디즈니가)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며, 문화 교류를 촉진할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낭독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호텔과 상업시설을 갖춘 리조트로 총 면적이 도쿄 디즈니랜드의 2배인 3.9㎢에 이른다. 여기에 앞으로 제3기까지의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초의 해적 영역 외에 투모로우랜드, 판타지랜드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여기다 중국의 전설적 인물을 영화화한 '뮬란'의 주인공이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등 중국적인 요소도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판매하는 메뉴의 70%를 중화요리로 채우는 등 중화풍을 극대화했다. 입장료는 주말 499위안(약 8만8600원), 평일 370위안이다. 연간 방문객은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출범에 가장 긴장하는 건 일본이다. 일본에는 도쿄 디즈니랜드 외에 디즈니 시(Disney Sea)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후쿠오카의 하우스텐보스 등 아시아 관광객을 겨냥한 세계적 테마파크가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디즈니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 도쿄 쪽도 가보고 싶다는 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에 오리엔탈랜드는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 엔을 투자할 계획도 이미 세웠다. USJ와 하우스텐보스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이 내년 말 오픈 예정인 한류 테마파크 'K-컬처밸리'도 상하이 디즈니랜드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인에게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를 내세운 만큼 일부러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 쪽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동안 홍콩 디즈니랜드의 고객 대부분이 중국 본토인들이었던 만큼 한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미숙한 마케팅은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보통 여행사들은 대형 테마파크가 문을 열기 2년 전부터 운영업체와 협상해 단체 티켓을 매입하는 등 계약을 맺는데, 상하이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당분간 중국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가 되려면 외국인 방문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올랜도 찾은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 주 올랜도를 방문, 참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장소를 찾아 헌화한 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족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의 슬픔을 형언할 수 없다. 유족들은 내게 '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계속될 것이냐'고 물었다"며 의회가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입법화하도록 재차 촉구했다. 올랜도/AP연합뉴스

IPO시장에 70억달러 '진짜 대어'가 온다

中우정저축은행, 홍콩서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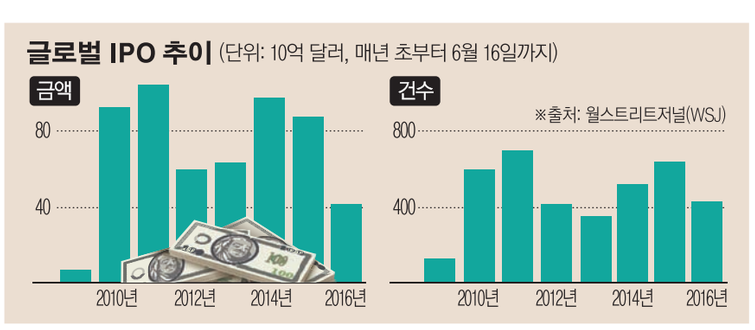
신청서 2주 안 관계당국에 제출

절차 원만하면 9~10월에 상장

올해 세계 최대 기록 세울 듯

지금까진 덴마크 26억달러 최고

글로벌 IPO 추이 (단위: 10억 달러, 매년 초부터 6월 16일까지)



한동안 얼어붙었던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에 낭보가 전해졌다. 중국우정저축은행(이하 우정은행)이 70억 달러(약 8조2460억 원)로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정은행은 앞으로 2주 안에 홍콩증시 IPO를 위한 신청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가 완만하게 진행되면 9월이나 10월에 상장이 가능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올 들어 IPO 시장에서 세계 최대 기록은 덴마크 전력업체 동에너지가 지난달 세운 26억1000만 달러다. 우정은행이 상장하면 이를 뛰어넘게 된다.

글로벌 경제전망 불확실성과 기술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올해 IPO시장은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치러진 IPO 규모는 418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휩싸였던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정은행은 자사 지분의 20%를 상장해 70억~1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중국 국영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우정은행 IPO 수요의 상당 부분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중국 IPO에 미온적이었던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 소로스와 짐 채노스 등 세계적 투자자들이 부실대출 등 중국의 부채 문제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자산 기준 중국 6위 은행인 우정은행은 다른 경쟁은행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이 은행은 중국 전역에 퍼진 4만 개 이상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보다는 채권시장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실대출 위기에서 자유롭다. 우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부실대출 비율이 0.22%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 본토 A주와 홍콩증시에 상장된 18개 중국 은행의 지난 1분기 부실대출 비율은 평균 1.69%에 달했다.

다만 중국 은행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우정은행 IPO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정은행 IPO는 홍콩증시 자체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홍콩증시 IPO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기업은 두 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현재 IPO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폭스바겐, 배기가스 스캔들 이미지 벗기

무인차·전기차·차량공유 새 전략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그룹 최고경영자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장기 경영전략 '전략 2025'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오는 2021년을 자율주행차 원년으로 삼는 장기 경영전략, 이른바 '전략 2025'를 내놨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독일 북부 볼프스부르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개발, 차량공유 서비스, 비용 절감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회사는 신경영전략을 바탕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이후 악화된 이미지 쇄신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이번에 공개된 경영전략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21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무인차를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1000여 명을 새로 영입해 기술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30종의 순수 전기차를 출시해 200만~3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사 전체 생산 차량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비율을 현재 1%에서 앞으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뮐러 CEO는 전기차 사업 확장과 관련해 핵심 부품 공장 건설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업계에 부는 디지털화 열풍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2021년 개발을 마친 자율주행차를 고급차 브랜드 아우디를 중심으로 시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시판 외에도 최근 완성차 업계 화두가 된 차량공유서비스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이스라엘 차량공유서비스업체 겟(Gett)에 3억 달러 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차량공유서비스 투자를 통해 2025년에는 수십억 유로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효율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80억 유로의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그룹 내 26개로 흩어져 있는 엔진, 변속기 등 각종 부품 사업을 1개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영업이익률을 7~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폭스바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6%였다. 다만 이번 경영효율화 방침에는 인력 감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美·日·유럽 중앙은행, 긴급 달러 공급 검토

리먼사태 금융시스템 불안 교훈

'브렉시트' 대비 유동성 협조

현재 주 1회서 매일 공급 체제 전환

G7 차원 긴급 성명 발표 가능성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에 대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앙은행은 비상시 금융시장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의 경우, 현재 주 1회 달러 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있지만 달러 부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연일 공급하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 등도 이를 놓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구체적 대응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달러 자금 공급과 함께 주요 7개국(G7)이 긴급 성명을 낼 가능성도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6일 정례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요 중앙은행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며 "(달러 부족 사태가 일어나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영국의 EU 탈퇴가 세계 경제 및 금융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 시장에서의 달러 자금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EU 잔류를 호소해온 영국의 여성 국회의원이 16일 50대 남성에 급습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브렉시트 우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브렉시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가 강행되는 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리먼사태 당시에 겪은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각국이 달러 가뭄에 시달리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에 미국 연준과 일본은행, ECB, 영란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국립은행 등 6개 중앙은행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 리먼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달러 유동성 공급 시 협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은 연준에서 달러 자금을 인출해 각자의 국가 및 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은행들의 이 같은 긴박한 움직임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개별적으로 달러 자금 확보에 나서는 각국 금융기관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들은 긴급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달러 부채를 안고 있는 금융기관들에는 달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블랙록' 중국A주 연동 ETF

MSCI 편입 불발에도 출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 불발에도 중국 A주와 연동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이셰어즈 중국 A주 ETF'가 뉴욕에서 전날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이 ETF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와 연동되는 ETF다. 아이셰어즈 MSCI 중국 A주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취득한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쿼터를 통해 본토 A주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해당 펀드의 보수비율은 0.65%로 중국 A주를 추적하는 13개 미국 상장 펀드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본토 거래소와 홍콩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ETF에 유입된 자금은 3억8700만 달러였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롤스로이스, 자율주행차도 고급지네

운전대 없이 한쪽으로만 열려

인공지능 비서 탑재 등 특성



롤스로이스의 자율주행차 콘셉트카 '103EX'. 롤스로이스 웹사이트

럭셔리 자동차업체 롤스로이스가 16일(현지시간) 자사 첫 자율주행차인 콘셉트카 '103EX'를 공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비전은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이며 문은 한 쪽으로만 열리고 호텔 예약 등의 작업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비서를 탑재하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미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는 "우리의 차량 가격은 최대 100만 파운드(약 16억 원)에 이른다"며 "모든 차량을 로봇으로 운전하는 시대가 와도 우리 고객들에게 럭셔리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르스텐 뮐러-외트뵈스 최고경영자(CEO)는 "새 자율주행차 디자인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며 "25년 안에 우리 고객이 럭셔리한 자율주행차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롤스로이스는 모회사인 독일 BMW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서 '103EX'를 선보였다. 자율주행 외 롤스로이스의 상징인 12실린더 엔진이 사라진 것도 큰 특징이다. 한 마디로 '배기가스 배출 제로'를 선언한 셈이다. 뮐러-외트뵈스 CEO는 "대량생산에 들어가는 2040년대 말에 103EX의 동력원이 무엇이 될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현재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문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표작 '비너스의 탄생'에서 영감을 얻어 조개처럼 한 쪽으로 활짝 열리는 구조를 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년 반 만에 공식석상 나선 윤송이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이사장

"사람중심 디지털 기술로 장애극복 도울 것"

4년 전부터 발달장애 아동 소통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뇌과학 연구 지원도 병행…"정부가 함께 도와야" 제안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디지털 기술로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뇌의 메커니즘 규명 등의 기초 연구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무대에 섰다. 2년 반 만에 공식석상에 나선 윤 이사장은 디지털 기술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발달장애 아동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윤송이 이사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휴먼테크놀로지' 행사에서 '인간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비영리 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이사장은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은 뇌과학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인간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4년 전부터 발달장애 아동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아직 수익은 없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이사장은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의 '인간을 위한 기술'로 발달장애인, 파킨슨병, 실어증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앱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뇌과학 연구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수익을 낼 수 없는 기술 개발에는 기업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함께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2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최연소로 졸업하고 미국 MIT대 미디어랩에 입학한 윤 이사장은 뇌과학과 로보틱스를 접목한 연구로 3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윤 이사장은 엔씨소프트 창립 15주년을 맞은 2012년, 공익재단인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 후 사업 방향을 찾던 그는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접하고 AAC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윤송이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이사장이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16' 대상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엔씨소프트문화재단

AAC는 '좋아요', '싫어요' 등의 의사 표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발달장애인이 이를 선택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이다. 엔씨문화재단은 2014년 5월부터 AAC를 보급 중이다. 현재 2만여 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앱이 활용되고 있다. 이날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무료 앱 '나의 AAC'로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16 대상을 수상했다.

엔씨소프트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핵심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아이디어를 계속 모았다"며 "그 결과 사람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ACC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한화갤러리아, 10년 이상 이어온 나눔행사

강화도 장애인 재활시설 봉사활동



16일 한화갤러리아 황용득 대표이사와 임직원 봉사단이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강화도 우리마을을 방문해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와 임직원 봉사단이 16일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강화도 우리마을을 방문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강화도 우리마을은 2000년 성인 지체장애인들에게 평생 기능교육을 통해 자립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지체 장애인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2005년부터 우리마을과 인연을 맺고 매년 임직원이 직접 방문, 봉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한화갤러리아 봉사단은 쌀 450kg을 전달하고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우리마을의 수익사업 중 하나인 부품조립 작업 지원과 시설의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강화도 우리마을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콩나물 사업, 작물 재배와 외주사업 등 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봉사단은 우리마을 거주 장애인들과 팀을 이뤄 외부에서 물건을 납품 받아 부품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외주사업을 지원했다.

점심식사는 황용득 대표의 제안으로 자장면과 탕수육 120인분으로 준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한화갤러리아 봉사단이 방문했을 당시 함께 송편을 빚던 장애인들이 자장면과 탕수육이 먹고 싶다고 했던 것을 기억한 황 대표의 깜짝 선물이다.

이선애 기자 lsa@

조아제약, 장애아동 창작지원 멘토·멘티 결연

문화활동 '프로젝트 A' 4년 연속 후원



15일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A' 멘토·멘티 메세나 결연식에서 조아제약 손준형 전무가 멘토·멘티 결연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조아제약

조아제약은 15일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장애아동 창작지원 메세나 사업인 '프로젝트 A' 멘토·멘티 메세나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메세나 결연식에는 조아제약 손준형 전무가 예술가와 장애아동 멘토·멘티들에게 결연증서를 수여했다.

멘티들은 지난 11일 진행된 장애아동 일일 미술 멘토링을 통해 멘토 예술가들에 의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5개월간 월 2회 이상 자신의 멘토 예술가와 정기적으로 만나 숨겨진 재능이 되살아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프로젝트A는 서울문화재단 산하 서울시창작공간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장애아동 창작지원 사업으로 조아제약이 4년 연속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선정하는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 2대 회장 최영구 대표

"사회공헌·청년고용 책임 다할 것"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GCCA)가 제2대 회장으로 최영구〈사진〉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GCCA는 미국, 독일 등 세계 20여 개국 약 100개의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최영구 회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후 고려대 공학대학원에서 강구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부건설 등을 거쳐 2004년부터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최 회장은 "GCCA는 2014년 설립 이후 대표자들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은 물론, 유수의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 아름다운 가게와의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GCCA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외형의 확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년 고용 등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j_kim@

고로설비 김차진·전기설비 김성남·車강판 신승철씨

포스코, 올해를 빛낸 '철강 명장' 3인



포스코가 2016년 '포스코명장'으로 선정한 고로설비 분야 김차진(왼쪽부터)씨, 자동차강판 분야 신승철씨, 전기설비 분야 김성남씨. 사진제공 포스코

포스코는 2016년 '포스코명장'으로 고로설비 분야 김차진씨, 전기설비 분야 김성남씨, 자동차강판 분야 신승철씨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철강 기술인을 뽑는 포스코 명장 제도는 현장 엔지니어가 업무를 통해 축적한 현장 기술 및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했다.

1976년 입사한 김차진 명장은 고로분야 핵심정비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고로 노체 냉각기능 유지기술을 정립하고 고로 설비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특히 2012년에는 포항 3고로 최적 투자설계로 투자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1978년 입사한 김성남 명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압 회전기 및 케이블 진단 기술을 보유한 전기설비 전문가로서 전기 설비의 선제적 진단 및 전공장 고압 모터 제조방법 개선으로 제철소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했다.

1982년 입사한 신승철 명장은 소둔로 구축 및 관리기술을 보유한 연속소둔 기술 전문가로서 자동차 강판을 생산할 때 최종품질 및 강도를 결정하는 열처리 공정의 결함을 제로화함으로써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 구현에 앞장섰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장의 우수 기술인력이 우대받아야 한다. 포스코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나오기에 현장의 창의적 개선활동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 포스코명장' 선정자에게는 자사주 50주와 상금 200만원, 500만원 상당 여행 상품권이 지급되고 1직급 특별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 후 인재창조원 자문교수로 우선 채용될 수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오프라 윈프리, 힐러리 공개 지지
"지금, 여성들에게 중대한 순간"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사진〉가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윈프리는 15일(현지시간) 저녁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힐러리 캠프'의 대선 슬로건을 인용해 "나는 그녀를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윈프리는 "당신의 정치적 관점이 어떠하건, 지금은 여성들에게 중대한 순간"이라면서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선 기자 dwt84@



1959년 금성사가 개발한 최초의 국산라디오 'A-501'. 사진제공 코베이

'국산 1호 라디오' 낙찰가는
1959년 금성사 개발…22일 경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시초로 꼽히는 국산 1호 라디오가 경매에 나왔다.

문화예술 경매회사 코베이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리는 경매에 1959년 11월 금성사가 개발한 최초의 국산라디오 'A-501' 모델이 출품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산 1호 라디오의 경매 시작가는 7300만원이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최병오 형지 회장 장녀 최혜원 경영일선에
형지I&C 대표이사 전무에 임명
패션그룹 형지 사장 김인규씨





패션그룹형지가 16일 임원 인사를 통해 김인규〈사진 왼쪽〉 패션그룹형지 사장, 최혜원〈오른쪽〉 형지I&C 대표이사 전무를 각각 임명했다.

김인규 사장(52)은 이랜드 글로벌소싱 부문장 출신으로, 2009년부터 패션그룹형지 글로벌소싱 총괄이사, 전략본부장을 거쳐 2012년 형지가 인수한 형지I&C(전 우성I&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최혜원 대표이사 전무(36)는 2014년부터 형지I&C가 전개하는 여성복 '캐리스노트' 사업본부장을 맡아 브랜드 성장을 견인해왔다. 2008년부터 패션그룹형지 글로벌 소싱 구매팀, 크로커다일레이디 상품기획실 등을 거쳐 지난 2013년에는 패션그룹형지 전략기획실장을 맡아 브랜드 경영을 두루 경험했다. 최혜원 대표이사는 최병오 회장의 장녀로, 이번 인사로 계열사 대표이사로 본격 경영일선에 나서게 됐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성주그룹 25년史 '성주이야기' 발간
도서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예정



성주그룹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그룹의 역사를 담은 기념 서적 '성주 이야기(THE STORY OF SUNGJOO)〈사진〉'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주 이야기'는 독일 명품 브랜드 MCM을 인수, 세계적인 패션 그룹으로 성장한 성주그룹의 25년간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기업의 창립을 기념해 펴낸 '기업 역사서'를 넘어,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이 난관을 뚫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성주그룹, 성주재단, 그리고 기업 이념과 관련된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눠진 이 책은 25년 기업의 역사를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무겁지 않게 풀어냈다.

명품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구찌와 소니아 리키엘 등 명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성사시켰던 이야기, 투명 경영만을 고집하며 영국 패션 유통업체 '막스 앤 스펜서'의 판권을 따낸 성공스토리, 모기업이었던 독일 MCM 본사를 인수하던 극적인 상황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다. 도서 판매 수익 전액은 봉사와 나눔을 중시하는 성주그룹 이념에 맞게, 성주재단을 통해 기부된다.

그룹 관계자는 "성주 이야기에 담긴 지난 25년간의 기록은 불모지에서 시작해 각종 편견과 유리천장을 뚫고 목표한 바를 이뤄온 성공스토리"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

인사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배재웅 △공주대학교 사무국장 강건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형렬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조달청** ◇**과장 승진**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김용환 ◇**서기관 승진** △국제물자국 원자재총괄과 김종민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교육원장 안용덕

◆**인천시** ◇**2급 승진** △서구 부구청장 이종철 ◇**3급 승진**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이홍범 △광역교통정책관 최종윤 △위생안전과장 박판순 ◇**4급 승진** △재정지원팀장 이정두 △재산운영1팀장 김한우 △장애인정책팀장 강원배 △여성정책팀장 권후자 △재생정책팀장 김진평 △녹색기후기획팀장 이학규 △교통정책팀장 차경원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총무팀장 권욱한 △동부공원사업소 대공원팀장 배창호 △동물관리팀장 한태호 △수산진흥팀장 손시형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강종욱 △보건정책팀장 노순호△도로계획팀장 최광찬 △체육시설팀장 강춘석 △주거정책팀장 권혁철

◆**건국대** △프라임사업단장 민상기 △프라임사업본부장 강황선

◆**아시아엔·매거진N** △부사장 류진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조하늘

◆**CBS** 〈**승진**〉 △기획조정실장 안영기 △미디어본부 ICT R&D센터장 안종우 △마케팅본부장 성기명 〈**전보**〉 △경남방송 본부장 윤기화

부음

▲**정상옥**(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씨 별세, **김진엽**(서울대 교수)·**진황**(현대고 교사)·**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씨 모친상, **양혜진**(멘토플러스 원장)씨 시모상 =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2-3010-2231

▲**허철**(르노삼성 안산지점장)씨 부친상, **이명훈**(현대중공업 상무)·**조용우**(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씨 장인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3410-6912

▲**오계석**(충호안보연합 사무총장)·**경석**(삼성전자 부사장)씨 부친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7

▲**권대순**(군인공제회 회원마케팅팀장)씨 부친상 = 16일, 대구 경북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53-200-6141

▲**이승준**(대구MBC 영상취재팀 차장)씨 부친상 = 16일, 한결요양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53-655-4444

▲**장상봉**(자영업)씨 모친상, **김영록**(전 키움증권 감사위원)씨 장모상 =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40

▲**안창현**(전 충청일보 서울본부장)씨 부친상 = 16일, 청주의료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43-279-0156

▲**이완식**(금융감독원 전문검사원)씨 부인상, **이원태**(장금상선 직원)·**은지**(JTBC 직원)씨 모친상 =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27-7594

▲**김성호**(혜성금속 대표)·**김희동**(우송인터내셔널 대표)·**박경의**(레오켐 기술연구소장)·**정돈영**(신한금융투자 IPS본부장)·**이준성**(전 한화투자증권 부장)·**조세종**(조세종치과 원장)씨 장인상 =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3010-2295

▲**송상호**(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차장)씨 모친상 = 1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발인 18일, 031-900-4444

▲**문호상**(프리드 영업대표·전 서울시 미디어수석)씨 부인상 = 16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10-3425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1화 이노베이션 러브 ⑫

서종호는 눈이 부셔서 이숙영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쑤시개를 잘근잘근 씹다가 자신도 모르게 꿀꺽 삼켰다. 이게 무슨 향이지? 처음 맡아 보는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남자 분들에게 좋은 구기자차이옵니다."

"나, 남자들에게 좋은…"

서종호는 빼어난 미인 앞에서는 눈이 환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단정히 앉아 있는 이숙영의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애조를 띠고 있다. 갸름하고 둥근 턱, 둥글게 말아 올린 머리카락에서 몇 올이 흰 백설에 누워 있다. 붉은빛을 띠고 있는 작고 가는 귀 뒤로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목선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저도 문헌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숙영은 김익환과 서종호가 자신에게 빨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여자들은 차를 대접할 때 저고리를 걷어 올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숙영은 저고리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마치 한 복을 벗는 것처럼 저고리 소매가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희고 가는 손목이 천천히 드러났다.

꼴깍!

김익환은 더 이상 적립식 펀드가 생각나지 않았다. 이숙영의 손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섹슈얼



한 기운에 빠져들어가면서 마른침을 삼켰다. 이숙영의 시선과 마주치면 그대로 빨려들 것처럼 큰 눈망울, 긴 속눈썹, 웃을 때마다 벌어지는 투명한 입술에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낯선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다. 이숙영은 다른 여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눈빛, 어찌 보면 무한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찌 보면 나를 안아 달라고 말없이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럼 천천히들 드세요."

이숙영은 찻잔에 부드러운 미소를 담아서 양손으로 권했다. 김익환은 차에서 처음으로 여색의 향기가 풍기는 것을 느꼈다.

"가, 가십니까?"

서종호는 이숙영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꿈인가 싶으면 현실이고, 현실인가 싶으면 꿈이다. 허우적거리는 얼굴로 물었다.

"네, 그럼…"

이숙영은 서종호에게 한 치의 틈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얼굴로 바라봤다. 서종호가 멈칫거리는 사이에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기, 김 과장."

"네…"

"진짜 물건일세. 진짜 물건이야."

"무, 물건이라니요?"

"내 나이가 육십이 넘었지 않는가? 솔직히 나 여자를 품에 안아본 지 오래됐네. 하지만 지금 이것 좀 보게."

서종호가 체면 불고 염치 불고 자존심 불고하며 바지 지퍼 부분을 보여줬다. 그놈이 단단하게 텐트를 치고 있다.

"제, 제가 어떻게?"

김익환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아직도 이숙영의 향기가 코앞에서 부는 것 같아 코를 벌름거리며 물었다.

"아니, 김 과장 손으로 해 달라는 말은 아닐세. 어떻게 저 여자 좀 만나게 해 줄 수 없겠나?"

"사장님 저도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잭팟을 터트렸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 거 같다구요."

"내 말 명심하게. 저 여자와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김 과장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 주겠소."

"아,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종호는 빌딩을 다섯 채나 가지고 있다. 하루에 현금 1000억 원을 끌어올 수 있다. 김익환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으나 자신감은 없었다.

"꼭 좀 부탁하네."

서종호는 지금까지 한 여자가 이처럼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은 적은 없었다. 여자는 얼굴이 예쁘나 못생기나 다 똑같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숙영은 다르다. 여자는 여자이되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고전에서 보는 여자의 아름다운 조건은 삼백(三白)이라 하여 피부와 이와 손이 희어야 하고 삼흑(三黑)은 눈동자와 눈썹과 머리가 검어야 한다.

삼홍(三紅), 입술과 손톱과 양볼은 붉어야 하고, 삼장(三長), 키와 머리와 손가락은 길어야 한다. 삼광(三廣), 가슴과 이마와 미간은 넓어야 한다.

삼협(三狹), 입과 허리와 발꿈치는 좁아야 하고, 삼비(三肥), 팔과 허벅지와 젖가슴은 통통해야 하고, 삼세(三細), 손가락과 머리카락과 입술은 가늘어야 하며, 삼소(三小), 머리와 코와 턱은 작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요즘 미인의 조건은 연애 감정으로 기준을 삼는다.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미인의 조건이 된다. 만약 동양적 미인의 조건으로 친다면 영화배우나 탤런트 90%는 탈락이다.

서종호는 뒤늦게 찻잔을 들었다. 이 잔을 이숙영의 아름다운 손으로 들어서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마실 수가 없었다.

카페 이삭은 종로3가 뒷골목에 있다. 근처에 극장이 있어서 영화를 보거나, 보고 난 후의 손님이 대부분이다.

이숙영은 갈색 톤이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쓰고 무릎이 드러나는 청바지에 샌들 차림이다. 이삭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혼자 있는 남자 손님이 보이지 않았다. 백천길은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이다.

"숙영씨, 일루 와!"

이숙영이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백천길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이숙영을 보고 손짓했다.

어머!

이숙영은 너무 기가 막혔다.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위하여

오늘의 문학산책



유 성 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최근 우리 문학계의 핫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작가 한강이 그녀의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수상이라는 커다란 성취를 이룬 데 대한 축하의 분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의의 분위기이다. 앞의 것은 쾌거에 비유되는 대외적 성과이고 뒤의 것은 여러 쟁점을 내포한 대내적 사업이지만, 둘의 공통점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한강에 관련한 개인적 정보나 수상의 조력자였던 번역자 데버러 스미스에 대한 기사는 그야말로 넘치고 넘쳤다. 수상작에 대한 수준 높은 리뷰도 제법 많이 등장했다. 잘 알려졌듯이, 이 작품은 채식주의자가 된 한 여자가 스스로 나무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겪어가는 내면의 흐름을 담고 있다.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위안과 공감의 친화력이 강렬한 데다 한강 특유의 점착력 있는 문장이 얹혀 소설을 끝까지 손에서 못 놓게 하는 힘이 있다.

물론 나는 한강의 대표작으로 이미 '희랍어 시간'과 '소년이 온다'라는 두 장편소설을 주목한 바 있다. 앞의 것이 언어를 잃어가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 사이에 벌어지는 존재론적 드라마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보편적 차원을 호소했다면, 뒤의 것은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의 상황과 그에 대한 기억을 한편으로는 사실적 서사로, 또 한편으로는 숨죽이며 살아남은 자의 내면적 목소리로 어루만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수상작은 번역자의 선택에 의해 '채식주의자'로 향했다. 그것은 원저자인 한강 개인의 역량 못지않게 '영어 번역'이라는 과정과 결과가 중요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원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은 비영어권 작품이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된 것에 대해 시상하되 번역자와 작가에게 같은 상금을 수여하고 동급의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상 시스템은 '보편언어로서의 영어'를 캐치프레이즈로 삼는 그레이트브리튼의 제국적 욕망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초'를 유난히 호출하고 상찬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호들갑은 여전히 문제적이었다. 이 '최초'의 사건 이전에도 한국문학은 씌어지고 읽혔을 테고, 수상 후 갑자기 한국문학의 수준이 높아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세계 언어로서의 영어의 힘을 실감했으니, 천천히 '번역'이라는 과정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겸허하게 시작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데버러가 직역이 아닌 의역을 빈번하게 택했고, 심지어 오역이나 창의적 번역도 많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보다는 영어 사용자가 수용했을 때 친숙하게 다가오는 '창작적 번역'이 훨씬 위력을 발휘한다는 번역관(觀)과 마주치게도 된다. 말하자면 이는 '문학으로서의 번역'을 생각해봐야 하고, 정확한 번역보다는 아름다운 번역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기도 할 게다.

기왕 한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해보자. 한강은 원래 시를 썼다. 학창 시절 그녀는 소설가 한승원 선생의 딸로도 유명했지만, 언제나 잔잔하고 아름다운 필체로 원고지를 채워가던 '예비 시인'이었다. 그러던 중 1993년 계간 '문학과 사회'에 시가 당선됐고, 소설로는 그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닻'이 당선됐다. 그러니 습작 시절로 보나 등단 순서로 보나 '시인 한강'이 '소설가 한강'보다 먼저다. 등단 20년 만에 펴낸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문학과지성사, 2013)는, 비록 한강이 작가적 자의식을 소설 쪽에 내주었는지는 몰라도, '시인 한강'이 그 저류에 여전히 존재함을 알려주었다. '채식주의자'의 형상을 연상케 하는 다음 작품은 어떠한가.

> 푸르스름한/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찾아온 것은 아침이었다//한 백 년쯤/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내 몸이/커다란 항아리같이 깊어졌는데//혀와 입술을 기억해내고/나는 후회했다//알 것 같다//일어서면 다시 백 년쯤/볕 속을 걸어야 한다/거기 저녁 잎사귀//다른 빛으로 몸 뒤집는다 캄캄히/잠긴다 – '저녁 잎사귀' 전문

한강에게는 이러한 '웅크림'과 '깊어짐' 그리고 '캄캄히 잠김'이 있다. 그 침전(沈澱)의 힘으로 한강은 문학적 꿈을 꾸었고, 드디어 '아침'과 '볕 속'의 '다른 빛'으로 걸어갔다. 그러니 이번 수상을 두고 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비유한 것은 틀렸다. 자연스럽게 찾아온 한강 문학의 개화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맨부커상 수상 후 5월 24일 기자회견하는 소설가 한강. 사진제공 노컷뉴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받은 한강 '사건' 이전에 문학적 성취 더 의미

'국립한국문학관' 문단 내부의 담론 창작·번역·연구·향유 내실화 기회로

다음으로 문학관 이야기를 해보자. 작년 말에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위한 '문학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다가 4·13 총선 일정에 따라 유보되었던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문학진흥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과 향유를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기획되었는데,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분기 5년, 그 다음에 또 5년, 이렇게 하여 한 20, 3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 법안이다.

이 법안에 의해 진척되어갈 일들을 단순한 행정 차원의 사업에 머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문인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담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나 지면 등을 통해서 말이다. 행정 및 재정 지원, 제도적 지원 같은 부분은 국회나 정부에 맡기되, 그런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문학 내부에서 참신하고 역동적인 의견의 장을 펼쳐갔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일본 도쿄나 중국 베이징, 대만 타이난(臺南)에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 중인 국립문학관으로 향해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이미 선례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국립문학관을 통해 문학적 자산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활용해 후세를 위한 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니까 말이다. 이는 한국문학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학관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정함으로써 문학을 일종의 공공재 개념으로 해석하고 활용하자는 계획을 담고 있기도 하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부지 선정 공모에 나서면서 건립의 첫 단추를 풀어나가는 순서를 밟고 있다. 곧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설계 용역이 하나 둘씩 배정되면서 확실하게 그 외관과 콘텐츠를 구체화해갈 것이다.

문학은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궁극적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이를 접하고 누리는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끔 하는 문화예술의 한 영역이다. 그 점에서 아무리 영상매체가 주도적 예술로 자리 잡아간다고 해도, 문학을 통해 경험과 생각을 계발해가는 과정은 전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문학은 인간이 깊이 생각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데 더없이 필요하며, 언어를 통해 감동과 사상을 키우는 데 변함없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특별히 국가가 ~~문학·창작과·번역과·연구와·향유의·저변·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나서준다면, 개인 차원의 일로만 여겨졌던 문학의 순환 회로가 더욱 탄탄하고 견고한 공공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기대가 크다.

어쨌든 한강의 수상과 그에 따른 한국 소설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둘러싼 각계의 뜨거운 호응 등은 모두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기가 되어줄 것이다. 두루 한국문학의 융성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좋은 징후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국문학을 응원하고자 한다.

연세대 국문과, 동 대학원 졸. 문학박사. 현재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팔봉비평문학상, 김환태평론문학상 등 수상. 저서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등 다수.



제2인생의 동반자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유혹, 마음의 솟구침!
PART1. 문사철의 유혹 인문학과 교제하다 성찰에 빠지다
PART2. 희망의 유혹 떨림의 유혹이 멈추지 않는 한 인생 후반전은 더 넓게
PART3. 일탈의 유혹 제 2의 사춘기처럼 왜 우리는 일탈에 끌리는가?
PART4. 여행의 유혹 여행, 이 마약과도 같은 알 수 없는 홀림의 근원이여!
PART5. 이성의 유혹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이성의 유혹에 빠져라!
PART6. 성형의 유혹 "100세 시대, 좋은 인상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죠"
PART7. 맛의 유혹 "나이가 들었다는 건 제대로 된 맛에 대한 그리움 찾기"

브라보가 만난 사람



"행복추구 모든 것 〈번영학〉에 담았죠"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늦었다 싶었을 때 나의 전성기는 시작됐다" 64세 '대세 배우' 장광



"봉사를 원하세요? 눈높이를 낮추세요" 한국해비타트 이창식 이사장

6월의 맛 초여름 입맛 돋우는 자연 한쌈

초록빛 자연의 싱그러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6월이다. 계절마다 제철 과일이나 해산물을 맛보는 것이 좋은데, 이맘때면 푸른 생기로 가득한 채소를 먹는 것이 제격이겠다. 익히거나 양념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라면 더욱 좋다. 유기농 쌈채소와 구수한 보리밥, 숯불장작구이까지 즐길 수 있는 '산촌보리밥'을 소개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열흘쯤 전에 서초동에서 점심을 마시고(밥만 먹은 건 아니니까) 대방동에 있는 회사로 돌아올 때 택시를 탔다. 처음 보는 연푸른 택시였다. 기사에게 "이거 뭔 택시유?" 하고 물었더니 최근 20대밖에 안 나온 전기차라고 했다.

전기차, 대기오염 그런 것에 대해 몇 마디 주고받는데 그가 담배 피우는 고충을 이야기하기에 "나는 단칼에 끊었다"고 했다. "담배 끊는 놈, 이혼하는 놈, 쿠데타하는 놈은 원래 상종도 하지 못할 독종이다. 그러나 난 독종은 아니다. 알고 보니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은 박정희더라", 그런 말도 했다(이거 다 맞나?).

그러자 산 도둑놈 같아 보이는 (백미러에 비친 모습으로 미루어)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몇 년 전에 이혼한 뒤, 아들을 장가보내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가 딱 걸린 이혼 사유는 많았다. 1) 담배를 끊는다 2)술 취해서 해롱거리지 않는다 3)화장실에서 잠자지 않는다 4)일찍 귀가한다 5)처갓집 흉을 보지 않는다, 이상 다섯 가지를 각서로 써서 맹세했는데, 하나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각서까지 썼나 싶어 "아니, 왜 화장실에서 잔대요?" 하고 물었더니 술 취해 변기에 앉아서 자주 잤다고 그랬다. 쉽게 말해 똥을 싸다가 그대로 잠들었다는 건데, 밑을 닦아주고, 일으켜 세워서, 아랫도리를 입히고, 질질 끌어서 재우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백 번 천 번 이혼당해도 싸지.

그런데 그는 자기도 잘못했지만 아내, 그러니까 전처, 다시 말하면 그년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처남과 짜고 자기를 죽이려 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처남이 누나에게 집 전화로 보낸 공모 메시지인가 음성인가를 자기 휴대폰에 옮겨 저장했다던데, 이혼소송에서 이걸 딱 증거로 제시해 위자료치고는 싸게 1억 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고, 땅을 저당 잡혀 그 돈을 주고 헤어졌다는 것이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그는 "이혼하고 보니 홀가분하더라", "밥은 사 먹으면 그만인데 살림하는 데 불편한 게 많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년은 다시 안 봐도 그만이라고 했다.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나, 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음모였다"는 주장도 했다. 그런데 왜 각서까지 써 주었느냐고 했더니 평소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다.



곡조가 좀 슬퍼지는 것 같기에 장난기가 도져 "혹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이런 노래 아느냐?"고 물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으로 시작되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의 개사곡이다. 내가 어릴 때 고향 청년들이 자주 불렀다.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내가 사준 반지 내놔라. 육시랄 년, 베락 맞을 년", 이러고 난 뒤에 "몸부림치는 새끼 그냥 두고 가야 옳으냐. 평생을 빌어먹어라"라고 끝나는 노래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노래를 알려주는 동안 택시는 회사 앞에 도착했다. 그냥 내리기가 왠지 거시기해서 점심에 마시지 않고 남긴 와인 한 병(선배가 준 것)을 건넸더니 그는 "큰 선물 받았네. 아껴서 마셔야지" 그러면서 좋아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 택시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엉터리 가사를 적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글의 결론: 생판 남인 사람에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술이 생긴다.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 태 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회사였다면

요즘 조금씩 그 내면이 드러나는 대우조선해양의 실상은 한마디로 요지경이다. 차장급 직원이 180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횡령하는 데도 회사의 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이 주인 없는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차피 이 거대한 회사의 주요 결정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워치 독(Watch Dog)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채 퇴임하는 은행 임원들의 자리 챙기기에 바빴고, CEO를 위시한 경영진은 연임을 위해 청와대에 연줄 대기에 급급할 뿐 정작 회사 경영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니 2006년 이래 별다른 하는 일 없이 고액의 연봉과 고급 승용차, 자녀의 학자금까지 제공받는 소위 '고문'이란 비상근 임원이 67명에 달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심지어 국정원 퇴임 직원 및 전직 대통령의 사진사까지 고문으로 취임하는 요지경이 벌어지는 것이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란 회사가 미국 회사였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것인지를 한번 가정해보자. 미국은 회사의 존망에 관한 모든 결정이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정부는 증권시장에 거시적 경제정책, 예컨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개별 기업의 사안에 관해서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증권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개별 기업 CEO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게다가 미국의 증권시장은 상한가나 하한가 제도가 없어,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회사가 전사적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회사였다면 2000년 회사의 경영이 나빠졌을 때 당연히 회사의 주가가 연일 하락했을 것이다.

그러면 증권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조정 후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부응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의 투자은행들은 이 회사의 업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칼날 같은 보고서를 앞다퉈 내놓았을 것이다.

반면에 회사의 경영진은 아마도 이러한 업황 및 회사의 부진이 일시적 조선업의 불황 탓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은행들의 보고서가 회사의 보도자료와 배치되는 장기적 암울한 전망치를 담고 있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 수준까지 악화되면 회사의 CEO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무언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강력한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회사의 CEO는 먼저 불필요한 경비 절감, 인력 감축, 일부 Yard 폐쇄 등의 조치를 내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 조치에 호응하여 증시의 주가는 조금 반등하다가 결국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해 결국 한 단계 더 추락하고 만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회사는 존속하기 힘들어진다.

이 시점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고 특단의 조치가 검토되기 시작한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M&A이다. 일단 현재 시가에 경쟁사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제안하게 된다. 경쟁사 경영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양사의 합병이 별다른 매력이 없다고 보고 인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러면 마지막 수순으로 헐값에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PEF에 매각되고, PEF는 이 회사를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작지만 강한 새로운 기업체로 재탄생시킨다. 이러한 과정 어디에도 7조 원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실패한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인물 6월 17일 인조

이름과 다르게, 가장 인자하지 못했던 조선의 왕

1649년 6월 17일(음력 5월 8일) 조선의 제16대 임금 인조가 사망했다. 임진왜란 중인 1595년 12월 7일 태어난 인조는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왕위에 올랐다.

인조(仁祖)처럼 이름과 실제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왕이 있었을까. 묘호에 유교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꼽히는 어질 '인(仁)'이 있지만 인조만큼 인자하지 못했던 왕도 찾아보기 힘들 듯하다. 인조는 능력도 없고 국제 상황을 가늠하는 통찰력도 없어 조선은 두 차례의 호란을 겪고 자신은 '삼전도의 치욕'을 맛봐야 했다. 게다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가족까지 죽인 잔혹함으로 인해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암군(暗君)'으로 평가받는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쳐도 소현세자 일가가 풍비박산 난 것을 생각하면 권력을 위해 아들마저 버린 비정한 아버지 인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 씨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몸값을 주고 구출해 농사를 짓게 했다. 그리고 청나라와 조선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질로 있으면서도 막대한 이문을 남겼다. 그러나 인망이 높고 청나라 고위 관리들과도 친분을 쌓은 소현세자는 귀국하자마자 사망해 지금까지도 독살설이 돌고 있다. 물론 정사에는 인조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세자의 시신이 전부 검은빛이고 일곱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렀다"고 독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기록해 놓았다.

심지어 인조는 며느리 강 씨가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사약을 내린 것은 물론 어린 세 손자들까지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 결국 경선군과 경완군이 사망하게 된다.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는 일이었다. 인조는 무능한 왕이었지만 그가 인자하기라도 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배준호 기자 baejh94@

온라인 와글와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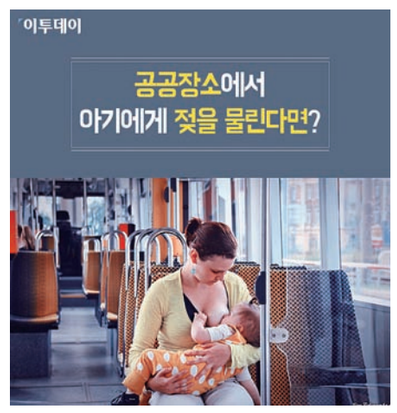
인천 광역버스 요금 인상 추진 "증차나 먼저 하시지"

인천광역시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6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는 2012년 요금 인상 후 운송원가 증가와 이용객 감소 등으로 버스업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객으로서는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제 도입이 훨씬 큰 부담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빨간버스'(직행좌석버스)를 타고 60㎞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2500원만 내면 됐지만, 10월부터 요금 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네티즌들은 "그만 좀 올려라", "월급만 안 오르는 듯", "광역버스, 길 막히면 지하철보다 느린데 요금 인상이라니!", "증차나 해라"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카드로 보는 세상



'공공장소 모유 수유'는 모성일까요? 노출일까요? 최근 독일에선 버스에 탄 여성이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중국에선 모유 수유 시설을 늘려 달라며 엄마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공공장소 모유 수유 논란. "자연스럽다"는 의견과 "보기에 민망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공공장소 모유 수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27dkn4

ISO 9001 인증업체
아이타올(주)
고품격, 명품 타올로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Crocodile 크로커다일
대표번호 02) 755-1091 www.itowelmall.co.kr

이슈&인물

구조조정 전제조건은 '자구'..기업 스스로 자금조달 길 찾아야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

이 진 복 의원

국책은행 자본확충 12조
전부 투입하지는 않을 것
야당 '先책임론' 주장하지만
무조건 자르면 누가 나서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
아직 수용하기에는 일러
'거래소 이전' 자본시장법
야당과 협상 가능할 것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대 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경쟁이 치열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정해졌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등 핫 이슈가 많은 국회 정무위원장에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1981년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부산 동래구의 3선 의원이 되기까지 35년간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 당 원내부대표,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후반기 여당 간사를 맡는 등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아온 이 위원장을 이투데이가 만나 20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각종 쟁점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국회의원 회관 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자신을 '의회주의자'라고 소개하고 확고한 원칙에 기반해 향후 정무위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의존 영업 '빅뱅크' 요원

△금융권에 큰 이슈가 많아 책임감이 클 것 같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향후 운영 방향은?

"저는 독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운영은 행정적 부분하고 정책적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행정적 부분은 위원들에게 맡길 생각이다. 위원들 간에, 혹은 정당 간에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위원들이 소신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위원들이 열정을 갖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를 열고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부분은 여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갈등이 없다면 그건 국회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다."

△최근 최대 쟁점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에 1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미쓰비시 중공업이 선박을 수주해 놓고 배를 만들 자국 협력업체를 찾아보니까, 1인 기업으로 전락해 한국을 찾았는데 인건비가 높아서 부품을 만들 수 없어 결국 중국으로 갔다고 한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많은 협력업체를 정리해 1인 기업으로 전락하면 나중에 정상궤도에 올라갔을 때 큰 배를 수주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구조조정은 회사의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잘못하면 금융회사를 부실 덩어리로 만들고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회사 스스로 자금 조달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투자자와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채권단에 손을 벌리면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되고,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정부에 손을 내미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부가 조성한 12조원 전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확보한 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기업들에게는 간접 지원 방식이 좋다."

△당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금융기관과 대상 기업들의 '선(先) 책임론'을 주장한다.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구조조정은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중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부패나 사익을 편취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겐 책임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나 정책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잘라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정책 과정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선 책임론'도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책임을 지우면 누가 나서겠나."

△정부가 내세운 4대 개혁 가운데 '금융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금융업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은행은 사실 수수료를 받는데 그치는 보수적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은행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빅뱅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동조는 하지만 우리 금융은 개방에 취약하다. 최근 중국의 공산은행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들에게 조 단위 대출을 하겠다고 한다. 중국의 선제적 정책에 대해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로 있을 수는 없다. 저금리 시대에서 금융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인정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18대 때도 그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에 오는 것에 위험 소지가 있다. 당시 여당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삼성, 현대가 은행을 소유해 만들어진 자금을 삼성, 현대에만 일방적으로 쓰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대기업을 운용하는 데 쓸 것 아니냐는 불신 때문이다. 지금은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 나도 기권, 수정 논의해야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경우 거래소 본사의 부산 명기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협상책이 필요한가.

"소재지 지역을 명시하면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슬기롭게 풀 방법이 있다. 제가 자본시장법을 발의한 이유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슬로바키아하고 우리만 IPO를 안 한다고 한다. 글로벌 기법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소재지를 부산이라고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야권 주장이니 조정하고 영역 부분도 야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도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기업들 다하는데 금융권만 안 한다는 것도 우스울 것이다. 쫓겨나는 것도 겁나고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에 월급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는 것이다. 주변에서 이거 꼭 해야 하냐는 얘기 들었다.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 사례를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중견업체 월급이 많으니까 미쓰비시 중역이 한국 중소기업 보고 우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데 우리 일을 받아서 할 수 있겠냐고 했다고 한다. 임금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면 반대를 안 할 텐데 신뢰가 없는 것이다."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영란법 표결할 때 기권했다. 김영란법이 부패지수를 낮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건 큰 기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자금이 회전돼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이해단체들과 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다. 9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또 유치원 선생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월 150만원씩 받고 연봉 합해 봐야 2000만원도 안 된다. 그래놓고 우리 사회 각종 법안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빠지는가. 김영란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서 일정 시기에 수정하자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 같다. 농축산 종사자와 영세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해소책이 있는지 업무 보고를 받아보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갈등은 당연, 조정이 국회 역할

△19대 국회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사안에 따라 어느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는 것은 판단의 문제다. 청문회, 국정감사를 다 해봤는데 총수나 CEO(최고경영자) 두 사람 중에 CEO가 전문성이 있으면 그 사람만 부르는 게 맞다. 거기서 답을 못하면 그때 윗 사람을 부르면 된다. 논쟁할 이유가 없다. 총수를 불러오면 국정감사가 잘되고 청문회가 잘된다는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다."

△정무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여야 위원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곳이고 위원장의 일도 이를 치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 의회주의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볼 생각이다. 위원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회의 시간 잘 지켜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의 인격을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회의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할 것이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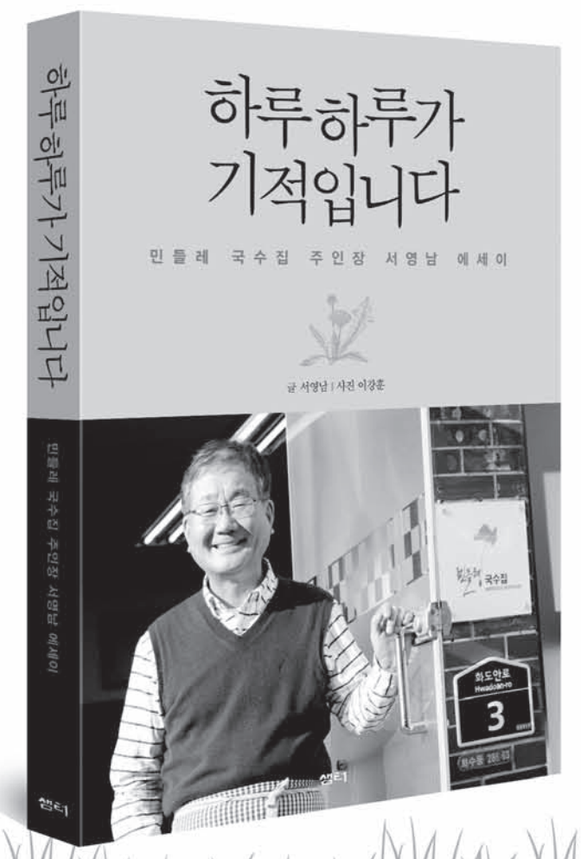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64 사회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1부 (02)799-2641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48
뉴미디어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사진영상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isamtoh.com 샘터

"아직 문 안 닫았어요?"

배고픈 이들에게 한 그릇의 사랑을 주는 민들레 국수집 13년의 기적

2003년 만우절 민들레 국수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나누기만 하는데도 거짓말처럼 13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고받은 것은 한 그릇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지쳐 희망마저 버렸던 이들이 하나둘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의 일상 안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숨겨둔 희망을 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웃는 날이 민들레 국수집과 만나는 날입니다. 감동해서 웃고, 이제는 가족 같은 민들레 수사님을 만나서 반가워 웃고, VIP 손님들과 공통 분모를 나누다 보니 또 웃지요. 이렇게 좋은 민들레 국수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_홍미정 님
세상을 편견으로 보았던 저의 시선을 부끄럽게 해준 민들레 공동체. 가장 낮은 자리로 흐르는 그 따뜻한 풍경 안에서 얼음 같던 편견이 녹았습니다. _서장훈 님

• 민들레 국수집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국수집(www.mindlele.com) 홈페이지에 남긴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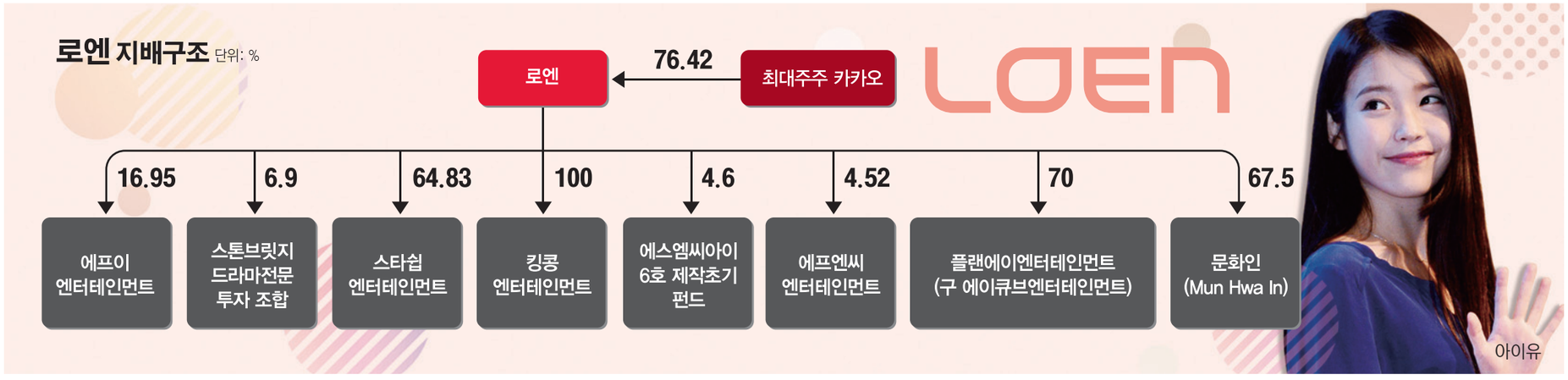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민들레 국수집 주인장 서영남 에세이 글 서영남 | 사진 이강훈 | 288쪽 | 무선철 | 값 13,000원


오승환 추신수 이대호 류현진 강정호 박병호 김현수
메이저리그 독점생중계
No.1 SPORTS NETWORK
MBC SPORTS+
MBC SPORTS+2
MBC PLUS
대한민국을 응원하라!

엔터기업 지배구조 대/해/부

8 로엔엔터테인먼트

로엔은 1978년 시사영어사의 영어 테이프 제조부서로 출발했다. 이후 1982년 서울음반으로 출발해 현재 온라인 음원사이트 멜론을 통해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로 이름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음원 1위 '멜론' 소유…'카카오' 품에서 종합엔터 볼륨 업~

음원서 연기 매니지먼트 영역확대 1분기 영업익 184억 40% 고성장

SK계열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거쳐 올 1월 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

스타쉽·킹콩엔터 인수, '문화인' 설립…아이돌+인디 레이블간 시너지

로엔엔터테인먼트는 한동안 엔터테인먼트 사업 특성상 수많은 부침 속에 많은 위기를 보냈지만 그때마다 대기업들과의 제휴와 발 빠른 투자 등으로 살아남았다. 현재 국내 1위 음원서비스인 멜론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연기자 매니지먼트에도 진출했다.

실적도 증가세에 있다. 2015년 로엔의 매출액은 3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3232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34억원으로 8.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02억원으로 9.8% 올랐다. 올해도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로엔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184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23%와 36% 성장한 964억원과 147억원으로 집계되면서 5분기 연속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실적 증가세를 통해 로엔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의 종합음악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로엔, SK→홍콩계 사모펀드→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 = 로엔은 SK그룹 계열 소속에서 홍콩계 사모펀드로 2013년 매각됐으며 올해에는 다시 카카오에 매각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로엔엔터는 과거 SK그룹→SK텔레콤→SK플래닛→로엔엔터테인먼트 형태의 지배구조로 인해 2013년 5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 이 경우 SK그룹의 증손자 회사인 로엔의 지분 100%를 SK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로엔을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SK가 로엔을 인수할 당시 SK텔레콤을 통한 손자회사였으나, 이후 SK플래닛을 설립, 로엔을 편입하면서 생긴 증손자회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당시에도 SK는 로엔을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었으며 바로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2013년 7월 18일 SK플래닛은 로엔을 스타인베스트홀딩스리미티드(홍콩-싱가포르계 사모펀드운용사)에 매각했다. 2년간 홍콩계 사모펀드가 주인으로 있던 로엔은 올해 다시 카카오에 매각됐다. 올해 1월 카카오는 로엔 지분 76.4%(1932만2346주)를 1조8700억원 규모에 인수했다. 이에 카카오는 로엔의 최대주주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의 보유지분 61.4%(1552만8590주)와 SK플래닛 보유지분 15%(379만3756주) 등 76.4%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엔터사 지속적 인수… 공격적 경영전략 = 로엔은 2013년부터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2월 씨스타가 속해 있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0%를 인수한 로엔은 지난해 5월에는 유연석, 이광수 등이 속해 있는 킹콩엔터테인먼트 지분 100% 인수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FNC엔터테인먼트 지분 4.2%를 사들여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기도 했다.

2015년 11월에는 에이핑크, 허각 등이 속해 있는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구 에이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 70%를 인수하는 등 중소기획사 인수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또 올해 6월 레이블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자 문화인을 설립했다. 레이블 음악의 콘텐츠 강화 및 산하 레이블 간 시너지 효과를 노린 포석이다. 로엔의 보유 지분율은 67.5%이다.

로엔은 올해 5월 사업구조를 변경해 내부 레이블 로엔트리, 콜라보따리의 사명을 각각 페이브(Fave), 크래커(Cre.ker)로 변경, 자회사를 신설했다. 이로써 로엔은 페이브엔터테인먼트, 크래커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문화인 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엠텍크루를 포함한 총 7개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자회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에이큐브엔터테인먼트는 꾸준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타쉽엔터는 지난해 233억원 매출에 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 에이큐브엔터 역시 90억원 매출에 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알짜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성시종 기자 ssj@



로엔엔터 매출킹 누구

노래·연기로 한해동안 100억↗
열애설 하루만에 시총 700억↘

아이유에 웃고 울고

'태양의 후예' 김지원 인기에 매출 급증

김범·이광수 중국 활동 실적탄력 전망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음반의 기획, 제작, 판매와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독립 레이블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한 매니지먼트 수익 구조로 돼 있다. 2013년 1850억원이었던 로엔의 매출액은 2014년 3233억원, 지난해 3565억원으로 성장했다. 소속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연예인은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다.

아이유는 지난 2010년 말 정규 1집 타이틀곡 '좋은 날'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이듬해 1분기에만 음원 매출 60억원을 달성했다. 이후 연기 겸업을 선언하며 드라마 출연료까지 벌었고, CF 모델 계약과 저작권 수입을 합해 약 1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증권업계는 아이유가 시가총액 1조8994억원의 코스닥 상장사 로엔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열애설이 불거지자 로엔의 시총은 하루 만에 700억원이 증발됐다. 또 그해 11월 새 앨범 '챗셔'의 무단 샘플링 논란과 수록곡 '제제'의 아동성애 의혹에 종가는 전날보다 5.13% 하락했고, 2조원이었던 시총은 하루 만에 1조9100억원으로 떨어졌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로엔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거대 엔터상장사를 압도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대표 아티스트는 아이유 한 명뿐이다"며 "그만큼 그의 활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아이유가 주연을 맡아 하반기 방영 예정인 '보보경심: 려'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총제작비 150억원 규모의 이 드라마는 100% 사전제작으로 한·중 동시 방영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미국 NBC유니버셜에서 투자했다는 점이 지난 4월 종영한 '태양의 후예'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로엔이 지난 2013년 인수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스타쉽엔터가 100% 지분을 취득한 킹콩엔터테인먼트도 매니지먼트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우 김지원은 '태양의 후예' 출연 이후 매출이 급증했다. 그는 드라마 종영 후 약 10개의 CF 촬영을 마쳤으며 중국 현지에서도 화장품 모델로 나서는 등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또 배우 김범과 이광수의 중국 활동 가능성이 크게 점쳐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김범은 중국에서 영화 '적인걸 프리퀄', '중생애인', '나를 사랑한다면 영화를 보여줘' 등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이광수는 SBS '런닝맨'의 현지 인기로 웬만한 한류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위에화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통해 한중합작 걸그룹 우주소녀를 데뷔시켜 국내외 활동이 기대된다. 소속 가수 씨스타, 케이윌, 정기고, 매드클라운 등의 음원 매출 역시 매니지먼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스타를 읽으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톱스타 12명의 성공비결
그 도전과 열정, 철학을 집중 조명하다
한류 스타들의 생생한 컬러 화보 160여 점 수록



스타성공학



이투데이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02)799-2699

성동일·김상호 이름 듣고 '나는 복받은 배우다' 쾌재

인터뷰 영화 '특별수사' 김명민



베테랑들과 호흡 내 연기누수 커버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캐릭터 원해
'특별수사'서 날내나는 브로커 변신
코믹뿐 아니라 거친 액션신까지 소화
스태프 이름 외우며 현장 분위기 챙겨

배우들이 가진 힘은 다양하다. 그 힘은 작품에 기여하기도 하고, 관객들의 호응도를 결정짓기도 한다. 김명민이 지닌 힘은 신뢰감이다. 그는 배우에게 가장 요구되는 연기력 측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안정된 톤과 뛰어난 캐릭터 분석력은 '명본좌'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해보지 않은 캐릭터를 하고 싶다"고 밝힌 대로 김명민은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즐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김명민의 도전이 영화 '특별수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특별수사'는 영화 '검사외전', '베테랑'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갑질'하는 사회에 대한 경고랄까.

"'특별수사'는 좀 다른 맥락으로 시작한다. 속물적인 필재가 갑자기 정의롭게 돌변하는 게 아니다. 의도치 않게 엮인 동현(김향기 분)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것뿐, '강자와 약자'가 첨예하게 선과 악으로 대립하는 영화들과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캐릭터 간의 관계가 중요한 영화다.

"어느 하나를 빼놓고는 구성이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없다면 유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전개를 이어가지 못했을 거다. 이 얼마나 치밀한 구성인가."

△극중 성동일, 김상호, 박혁권 등과 함께 남남(男男) 호흡을 잘 소화했다.

"'난 복 받은 배우다'라고 계속 느끼게 된 게 '특별수사' 배우들과 나는 올림픽에서 한 팀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실수를 해도 전혀 누수가 안 되게 그들이 곳곳에서 막아줬다. 내가 제일 먼저 캐스팅이 됐는데, 배우들이 차례로 캐스팅될 때마다 이름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늘 변호사, 의사 같은 인텔리를 연기하다 조금 이단아적인 잡초 같은 인물을 연기했는데. 어색하지 않았는지.

"날스럽고 양스러운 역할인데 이걸 나에게 맡긴 이유가 궁금했다. 감독님께서 '신뢰가 필요했다'고 하셨다. 날스럽다고 진짜 날스럽게 하면 재미가 없고 단면적인 캐릭터가 될 거라고 판단하셨다. 품격 있고 격조 있는 면이 더해질 수 있길 바라신 것 같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풀었다."

△'특별수사'에서는 코믹뿐 아니라, 액션에, 드라마까지 온갖 연기 톤을 다 보여줬다.

"액션이 많아 불만족스러웠지. 감독님이 처음에 '우리는 드라마가 중요시된다'고 했는데 실상 들어가 보니 액션을 더 공들이고, 오래도 찍었다(웃음). 시나리오보다 액션 분량이 많았고 몸으로 체험한 것은 더욱 셌다."

△함께 촬영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 스태프들을 잘 챙기고, 먼저 다가가는 것 같더라.

"난 현장 스태프들 이름을 다 외우지 않으면 몸에 가시가 돋는다. 그래서 늘 막내들 이름부터 외우고 시작한다. 그리고 촬영 한 시간 전에는 미리 도착한다. 20% 정도를 미리 준비해간다면 나머지는 현장에서 챙긴다. 스태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날의 분위기를 익혀가는 그 시간은 내게 정말 값진 시간이다."

△충무로는 40대 남자 배우 중심이다.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은지.

"좀 더 오래갈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기획되는 시나리오가 남자 위주다. 그런 기회를 발판으로 주름잡은 배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글/서현진·사진/윤예진 기자 sssw@



'장르물'로 승부수… SBS "안방 탈환"

이번주 '닥터스'·'원티드' 출격… 시청률 반전 노려

SBS 드라마가 새 월화극과 수목극으로 다시 한 번 비상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절치부심한 SBS가 야심차게 준비한 카드는 바로 '장르물'이다.

앞서 SBS는 지난 3월 말 종영한 월화극 '육룡이 나르샤'(이하 육룡)로 시청률 1위 가도를 달려왔다. 유아인, 김명민, 변요한, 신세경 등의 인기에 힘입어 '육룡'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성공했지만, 후속작 '대박'은 '육룡'의 승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숙종 역의 최민수의 열연으로 화제를 모으자 당초 의도와는 달리 숙종 분량이 지나치게 길어진 것. 때문에 왕위를 둘러싼 장근석·여진구 형제의 갈등 및 임지연과의 삼각관계는 밀도 있게 그려지지 못했다. 스토리 자체가 설득력을 잃으며 '대박'은 결국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꼴찌로 막을 내렸다.

'수목극'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지난 2월 종영한 '리멤버 아들의 전쟁'(이하 리멤버)이 남궁민·유승호·박성웅 등의 호연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후속작 '돌아와요 아저씨'(이하 돌저씨)가 초라한 성적으로 안방극장에서 외면 받았다.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평에도 불구하고 경쟁작인 KBS2 '태양의 후예'에 밀려 '돌저씨'는 결국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마지막 회 시청률 2.6%를 기록하며 아쉬운 끝을 맺었다. 뒤이어 방송된 '딴따라'도 2위와 3위를 번갈아 하는 등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연속된 실패를 겪은 SBS는 마침내 '장르물'이라는 히든카드를 뽑아들었다. 앞서 지난해 '펀치'와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등으로 지상파에서 보기 드물었던 장르물을 연달아 성공시켰던 SBS다.

SBS는 이번 주중극장에 '메디컬'과 '스릴러'로 승부수를 던진다. 휴먼 메디컬 드라마인 월화극 '닥터스'에 더해, 자식을 잃은 여배우와 범인 간의 치열한 심리 게임을 그리는 '원티드'가 수목극으로 포진됐다. 앞서 '펀치' 박정환 역으로 깊은 인상을 준 김래원은 '닥터스'를 통해 밝은 이미지로 변신할 계획이고, 박신혜는 캔디 이미지를 벗고 불량소녀 연기에 첫 도전한다. '엄포스'로 불리는 엄태웅은 '원티드'로 다시 한 번 그만의 '포스'를 뽐낼 것을 예고했으며, 김아중은 한 아이의 엄마 역으로 절절한 연기를 펼친다는 각오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드라마왕국이라 불렸던 SBS,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믿고 보는' 배우진이 완성됐고, SBS가 자신하는 '장르극'이 빼곡히 포진됐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김예슬 기자 yeye@



'대박'서 건진 '대박'… 장근석·여진구

아쉬운 시청률로 종영했지만 뛰어난 연기력에 기대감 ↑

'대박'이 결국 아쉬운 시청률로 안방극장에서 퇴장했다. 월화극 1위에서 꼴찌로 추락한 '대박'이지만, 배우 장근석과 여진구 진가를 재확인시켰다.

시작은 정말 좋았다. 초반부 최민수가 분한 숙종 캐릭터는 그동안 사극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과격함과 광기가 녹아 있어 시청자들을 열광케 했다. 팽팽한 긴장감과 불붙은 로맨스는 '육룡이 나르샤'에 이어 또 한 번의 '대박 사극'을 예감케 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 전개가 눈에 띄게 늘어지며 극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졌다. 이에 더해 흥미 포인트였던 투전판 장면들이 점차 실종됐고, '사랑을 건 한판 승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담서(임지연 분)를 사이에 둔 갈등보다는 서로 형제애를 나누는 여진구·장근석 모습만이 담겼다.

극 자체에서는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그럼에도 건질 만한 건 장근석·여진구의 호연이다. 일찍이 아역으로 연기생활을 시작한 그들은 극을 넘어 실제로도 형제애를 나누며 그들만의 호흡을 나타냈다. 최민수·전광렬 등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의 연기에 주눅들기보다는, 서로 합심하며 캐릭터와 극에 대한 연기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근석은 "내 10년 전이 딱 (여)진구 나이인데, 진구는 눈빛에서 에너지가 있다"며 연기 파트너 여진구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냈다. 여진구 또한 "(장)근석 형과 연기하면 감정이 잘 느껴진다. 눈빛이 정말 좋다"면서 "형은 꼭 내 손을 잡고 날 이끌어 가주는 그런 느낌이다. 정말 친형 같다"며 애정을 보였다.

서로 신뢰와 애정을 가진 만큼 그들의 케미는 빛이 났다. 특히 11살 때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한 장근석과 9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여진구는 이미 연기로는 '선 굵은' 연기자기에, 배역에 완벽히 녹아드는 연기를 펼쳤다. 장근석은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아시아 프린스'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살아있는 뱀을 씹어 먹는 등 강렬한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형' 장근석이 뱀과 게를 뜯는 등 거친 면모를 드러냈다면, '동생' 여진구는 처음으로 수염까지 붙여가며 제왕으로서의 내면 연기와 함께 성인 연기자로서 완벽히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아쉬운 성적으로 퇴장하게 됐지만, '대박'은 장근석·여진구라는 보물들을 안방극장에서 다시금 꽃피우게 했다. 이들이 앞으로 보일 연기 스펙트럼은 어떨까. 아역들의 롤 모델을 넘어, 한 사람의 기성 배우로서 연기력을 뽐낼 장근석·여진구에게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

한국판 맘마미아! 옥희아빠는 누구?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KBS2 월화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극본 임상춘, 연출 차영훈)는 섬월도를 배경으로 한 아빠 찾기를 그린 작품이다. 양백희(강예원 분)의 딸 신옥희(진지희 분)가 우범룡(김성오 분), 차종명(최대철 분), 홍두식(인교진 분) 가운데 자신의 친부를 가려내는 과정을 담았다. 세 남자 역시 옥희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룬다. 급기야 옥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매력 발산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쩌나, 엄마를 쏙 빼닮은 옥희는 그 누구에게도 쉽사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백희·옥희 모녀는 물론, 시청자들의 혼까지 쏙 빼놓은 세 남자의 매력을 지금 확인해보자.

이은호 기자 wild37@



내가 너 욕심내도 되냐?

'더티 사랑꾼' 기호 1번 우범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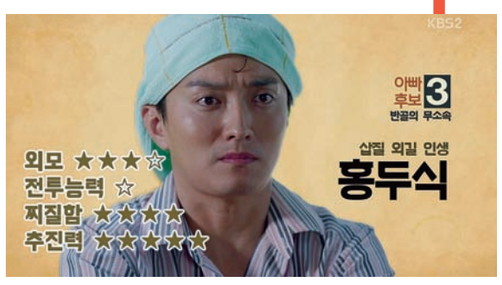
특이사항. 사랑꾼 미남.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저질 음담패설도 이 남자의 입술을 거치면 왠지 감미롭고, 똑같은 사투리인데도 이 남자의 음성을 통하면 왠지 섹시하다. 한때 태권도 유망주였던 만큼 전투 능력 또한 상당하다. 단, 백희의 주먹에는 꼼짝없이 나동그라진다는 것이 함정이다. 18년 전 백희가 떠난 뒤 집안이 망해 사정은 넉넉지 않지만 납품업과 여객 선장을 겸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매력마저 '오다 주웠다'는 이 남자

'질척 츤데레' 기호 2번 차종명

배우 주상욱과 김성수를 오가는 알다가도 모를 외모의 소유자. 거친 언행과 행동, 화려한 과거와는 다르게 전투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 게다가 집착이 심해 긴 시간 백희에게 질척거리며 그를 귀찮게 한다. 하지만 '츤데레' 매력은 세 남자 중 단연 최고. 옥희에게 곰 인형을 건네며 했던 "누가 줬는데 너 해라"는 말은 "오다 주웠다"의 뒤를 이을 '츤데레' 멘트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니들이 '복분자 맛'을 알아?

'찌질 상남자' 기호 3번 홍두식

세 남자 중 최약체. 우범룡이나 차종명은 물론, 아내 황장미(김현숙 분)에게도 꼼짝없이 쥐어터진다. 하지만 입버릇은 매우 험하니 말다툼은 삼가는 편이 좋다. 백희를 짝사랑하지만 그와는 '썸' 한 번도 못 탄 안타까운 신세. 다소 찌질해 보이는 인물이지만 '진짜배기 복분자주'만 있으면 '상남자'로 돌변한다는 후문이다. 자녀가 넷이나 된다는 점에서 그의 추진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하현우는 만능… 실력을 믿었다”

MBC ‘복면가왕’ 음악감독 임현기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예능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복면가왕’이다. 김연우를 시작으로 한 장기집권 가왕의 인기가 거미, 차지연 등을 넘어 ‘음악대장’ 하현우까지 이어지며 ‘복면가왕’은 MBC를 대표하는 예능으로 성장했다.

‘복면가왕’은 추리하는 재미가 쏠쏠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악예능답게 ‘듣는’ 재미가 가장 크다. ‘복면가왕’의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복면가왕’의 음악을 총괄하는 14년차 음악감독 임현기와 만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복면가왕’을 보다보면 항상 선곡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한다. 선곡도 직접 하는 편일까.

“보통은 가수가 직접 고른다. 선곡은 가수들에게 100% 맡기는 게 옳다는 게 지론이다. 가수들이 선곡을 가져오면 난 프로그램 시청 층이 다양한 걸 고려해서 약간의 조율만 해준다. 2주 만에 3곡을 익힌다는 건 가수들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다.”

△편곡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8명의 출연자들의 예비곡까지 모두 치면 24곡이니까, 약 48시간 정도다. 일단 가수들의 선곡을 받으면 ‘논스톱’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복면가왕’의 성공 이후 음악 예능들이 정말 많아졌다. ‘복면가왕’만이 가진 특징은 뭘까.

“추리 코드다. 그리고 ‘복면가왕’은 노래의 100%를 바꾸진 않는다. 원곡에 기반을 두고 원작자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편곡을 한다.”

△이유가 있나.

“음악은 역시 ‘듣는’ 거다. 방송을 통해 무대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신경 쓴다. 그래서 일부러 고음에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경향도 있다. 처음 들을 땐 좋게 들려도, 그게 듣다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그럼 또 쉽게 질리기 마련이다. 오래 들을 수 있는 음원을 목표로 작업한다.”

△하현우 이야기도 듣고 싶다. ‘음악대장’의 9연승, 예상했나.

“하현우는 노래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감성도 들었는데 가창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다. 만능인 셈이지. ‘몇 연승을 할 거다’고 딱 예상한 건 아니지만 그의 실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

△‘음악대장’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하현우의 본성은 ‘록’이다. 두성 베이스에 샤우팅 창법을 기반에 둔 사람이다. 거기에 감정 포인트를 잡는 균형이 잘 잡혔다. 충분히 지를 수 있는데도 무조건 지르지 않는다. 가사전달력도 정말 좋고, 노래를 자기 몸에 흡수를 시켜서 꼭 자기 몸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그대로 해석을 해낸다.”

△‘매일 매일 기다려’에서도 노래와 함께 손짓을 하는데, 꼭 관객들에게 호소하는 느낌이 들더라.

“그건 100% 하현우의 해석력이다. 후반부에서 약 14초 정도 연속 고음을 낸 건 내 의도가 아닌 하현우 본인의 역량이었다. 나도 거기까지 올라갈지 몰랐는걸(웃음). 하현우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화성 체계를 그냥 뛰어넘어버린다. 음역대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친구다.“

△혹자는 하현우를 ‘괴물 보컬’이라고도 칭한다.

“괴물보컬이고 뭐고 다 떠나서 하현우는 ‘국카스텐의 보컬리스트’ 아니냐. 순수하게 자기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순수하게 ‘팬심’으로.”

△하현우는 떠났고, 새 가왕이 올라섰다. 벌써부터 ‘하면 된다’의 정체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복면가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웃음). 스포일러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추리 음악 예능이니까.”

김예슬 기자 yeye@

> 가수가 직접 선곡… 조율만 해줘
> 예비까지 24곡 48시간만에 편곡
> 하현우 곡 해석하는 능력 최고
> 새 가왕? 스포는 자제해 주시길



“11년 전 정상에 있던 이소라… 초짜인 내게 연출 맡겨”

공연 연출 함윤호 감독

“아르바이트 하다 연출의 길로 당시 스태프들 10년 넘게 호흡 마음을 담은 공연 만들고 싶어”



함윤호 감독은 내로라하는 가수들의 공연 연출을 맡아온 인물이다.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통해 업계와 연을 맺은 뒤, 지난 2005년 이소라의 ‘에브리원 세이 아이 러브 유(everyone says I love you)’공연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당시 이소라는 이미 정상급을 달리던 가수. 그래서 궁금했다. 이소라는 함윤호의 무엇을 믿고 공연을 맡겼을까.

△처음 이소라를 만난 것은 언제인가.

“2002~2003년 ‘좋은 콘서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다. 어깨 너머로 이일 저 일 배우면서 연출에 욕심이 생겼는데, 2005년 이소라의 공연을 통해 정식 데뷔하게 됐다.”

△이소라는 당시에도 이미 정상급 가수였다. 뭘 믿고 당신에게 공연을 맡겼을까.

“나도 궁금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르바이트 경력까지 합쳐봐야 3~4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애한테 어떻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었을까? 운이 엄청나게 좋았다.”

△첫 공연, 기억나나.

“많이 난다. 3~4일 정도를 집에 못 가고 공연장 근처 모텔에서 쪽잠을 자며 공연을 준비했다. 당시 싸이가 공연을 관람하러 왔는데, 그 때를 계기로 싸이의 ‘원 나잇 스탠드’ 공연 연출도 맡아서 했다.”

△11년 전의 이소라와 지금의 이소라는 어떻게 다른가.

“2008년 발매된 7집 음반부터, 이소라가 삶,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 역시 똑같이 나이를 먹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마웠다. 그 나이에 갖고 있는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주고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꾸준히 위로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를 옆에서 보고 있다, 심지어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다.”

△무대 아래에서의 이소라는 어떤가. 요구사항이 분명한 편인가.

“아니다. 거의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워낙 노래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 공연 기간이 짧을 때는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신다.(웃음) 노래를 할 때 조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무대에 뭐가 등장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 스태프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한다.”

△함께 이소라 공연을 만든 스태프들과 10년 이상 호흡을 맞췄다고 들었다. 비결이 뭔가.

“일단 뮤지션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다. 뮤지션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발전을 해야 좋은 공연이 만들어진다.”

△공연을 연출하면서 늘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있나.

“작업 전 아티스트의 모든 음악을 듣는다.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마음을 담은 공연’을 만들려고 한다.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무대’, ‘모두가 헉! 하는 순간’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 뮤지션과 관객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공연장을 떠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글·이은호/사진·권영탕 객원기자 wild37@

“그 친구랑 절교했는데…” 유세윤의 경솔한 유상무 활용법

12일 방송 SNL서 개그 소재로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 가벼운 행동에 대중 반응 싸늘



개그맨 유세윤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절친 유상무를 희화화했다. 해당 사건에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여론 또한 민감한 상황. 사건의 무게감을 인지하지 못한 ‘눈치 없는’ 개그에 대중의 반응은 차갑다.

12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7’에서 정연주는 “TV에 나와서 ‘죽고 못 사는 친구’처럼 굴었으면, 친구가 사고 쳤을 때 같이 자숙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운을 뗐다.

유상무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을 꼬집은 것. 잘못은 유상무가 했지만, 함께 활동한 옹달샘 멤버 유세윤 장동민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런 여론을 빌려 논란의 당사자에게 책임의식을 안겨준 일침이지만, 이어진 유세윤의 가벼운 행동은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유세윤은 눈치만 봤다. ‘죽고 못 사는 친구’ 유상무를 둔 유세윤이므로. 더구나 그 친구는 대중이 민감하게 느끼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신뢰를 잃은 상태다. 코너에 몰린 유세윤이 “저기, 그런데 절교했다던데”라는 말로 위기를 모면했다. 유세윤은 절교라는 말로, 다급하게 그 친구와의 연결고리를 끊었다. 웃음포인트라는 걸 강조하는 것마냥 유세윤 표정은 과장스러웠고, 제작진은 작위적인 웃음소리를 효과로 집어넣었다.

유상무를 향한 뼈 있는 일침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가 그냥 시답잖은 농담 따먹기로 끝나버렸다. 실제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를 개그에서 희화화시키는 소재로 사용하자, 불쾌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법적 심판과 별개로 대중은 “상대 여성은 여자친구”라는 거짓 진술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유상무의 도덕성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그를 향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유세윤의 “절교했다”는 표현 자체도 성숙하지 못했다. 어린 학생들이 쓸 법한 ‘절교’라는 단어로 허무맹랑한 농담을 던진 그는 시청자의 불편함만 초래했다.

유상무가 느껴야 할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느낌보다는, 시의성 있는 웃음을 위해 그의 상황을 일회적 개그 소재로 소비했다. ‘SNL7’ 제작진 역시 여론불감증을 보인 신중하지 못한 판단에 비난을 샀다. 불편함만 남긴 ‘유상무 희화화’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웃음이었는지, 그저 모두에게 찝찝한 뒤끝을 남겼을 뿐이다.

서현진 기자 sssw@

박유천, 혐의는 벗었다지만…

상대 여성, 성폭행 고소 취하 유흥업소 출입·근태논란 ‘치명상’

그룹 JYJ 박유천에게 지난 며칠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바로 성폭행 혐의 고소 때문이다. 사건은 결국 상대측의 취하로 마무리됐지만, 경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덧붙여 ‘유흥업소 출입’, ‘근태 논란’ 등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그의 뒤에 따라붙었다.

박유천의 피소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3일. 고소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이뤄졌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근무 중이던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속옷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하 씨제스) 박유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씨제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유천은 1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강남구청에 출근했다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퇴근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유천이 군복무 기간 중 25%가량을 연가와 병가 등으로 소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근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보도 이틀 만인 15일,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박유천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강제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

강남경찰서 측은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 박유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점 자체가 불분명해진 상황이라 친고죄를 언급하기는 애매하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사 재개 의사를 밝혔다.

씨제스 또한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전했다. 단 무혐의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자 낙인이 찍혀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씨제스는 그러나 당사자 A씨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8월 입대해 현재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박유천의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

“히프 턴의 임팩트는 펭귄동작이 딱이죠”

골프&골퍼

‘사이언스골프’ 연재 시작하는 배우 출신 골프교습가 김동하

친구 골프연습장서 ‘나만 따라 해라’ 레슨 충격
“즐거운 마음으로 휘둘러라”… 힐링골프 목적
감각·주입교육 탈피 국가대표급 과학레슨 보급
전문·단기·속성… 과별 커리큘럼으로 수업 진행



‘끼’가 다분하다. 능력을 타고난 탓일까. 전혀 색다른 골프를 교습한다. 보고만 있어도 즐겁다. 사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설명을 적절한 비유를 섞어 잘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자, 날개를 핀 비행기처럼 양팔을 펴시고, 팔을 아래, 위로 움직이세요. 오른팔은 아래로, 왼팔은 위로. 이때 엉덩이를 빠르게 살짝 쳐줍니다. 이것만 완성해도 비거리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골프스윙에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 동작을 재미있게 재해석해 지도한다는 얘기다. 전환동작은 택견의 이크에크 동작을 응용해 이를 스윙리듬으로 만들고, 어깨회전은 비행기 동작으로, 히프턴(hip turn)에 의한 임팩트는 펭귄동작으로 재해석해 진행한다.

누굴까. 강남 역삼동에서 한국사이언스골프아카데미 김동하(45) 원장을 만나봤다. 미남형에다 손발이 커서 골프하기에 딱 좋은 몸을 가졌다. 키도 181cm이다. 한 가지 더 보태면 유연성이 뛰어나 아이언 7번으로 200야드를 쉽게 날린다.

미국에 데이비드 리드베터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동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국가대표들도 신분을 감추고 그에게 교습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그에게는 묘한 구석이 있다. 말솜씨와 몸짓이 예사롭지가 않다. 알고 보니 배우를 한 이력이 있다.

사연이 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가족의 생계를 돌봐야 했다. 어린 시절부터 하던 골프를 잠시 손에서 놔야 했다. 마침 골프스윙이 필요한 드라마에서 섭외가 들어왔다. 우연히 한 외도(?)는 여러 작품에서 러브콜이 왔다. 인생계획에 없던 탤런트를 한 것이다.

우연히 접한 골프는 1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골프아카데미를 나왔다. 그가 지도자의 길을 걷기로 생각한 것은 특별한 우승 경력이 없다는 것도 한몫했다.

“만일 우승했다면 아마도 현재 이 자리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신은 공평합니다.”

덕분에 방송 경험을 쌓을 수 있었지만 골프 생각은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다. 방송이 없을 때면 외국에 나가 골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며 연구했다. 15년간이나 매달렸다.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서였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친구가 회원이 자꾸 줄어 도와달라고 그를 초대했다. 덕분에 그 친구가 레슨을 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수업을 체계적으로 과정별로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잡는 클럽별로 봐주는 식의 ‘원 포인트’ 레슨이었다. 그의 눈에는 바로 문제점이 잡혔다. 특별한 설명없이 무조건 ‘나만 따라 해보라’는 식의 레슨과 함께 못하면 ‘그걸 왜 못하나’식의 지적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교습가는 기본적으로 관찰력과 분석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왜 그런 동작을 하려고 하는지까지 귀신처럼 알아채야 한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 제시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골프교습 철학이다. 특히 교습가의 지적질이나, 윽박지르는 고압적 자세는 피레슨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배움은커녕 오히려 학습 스트레스만 가중하는 나쁜 레슨이라는 얘기다.

> **“비행기처럼 양팔을 쭉 펴시고 팔을 아래, 위로 움직이세요… 오른팔은 아래로, 왼팔은 위로 엉덩이를 빠르게 살짝 쳐줍니다 이것만 해도 비거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이때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까. 바로 그시기에 그는 골프에 과학레슨 시스템은 도입했다.

이렇게 해서 김동하의 사이언스골프아카데미가 탄생했다. 그는 전문 2년, 정규 1년, 단기 6개월, 속성 3개월 코스 등의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소수정예로 운영한다. 각 과별로 커리큘럼에 의해 수업을 진행한다. 별도로 매주 실외 연습장에서 쇼트게임 집중훈련과 파3 실전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골프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핵심 교습 키워드. 세계적인 골프선수라고 어려운 스윙을 하는 선수는 없다는 것. 오히려 심플한 스윙을 찾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고.

과학골프는 이를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골프레슨은 프로 개인의 재능이나 감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개선해 일반인들에게도 국가대표급 레슨서비스를 보급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미래의 골프는 게임을 넘어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힐링골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론수업 시간을 통해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 지쳐 있을 그들을 위해 골프 심리학적 치료과정을 도입, 미소운동으로 긴장을 풀어주죠. 연습의 이유와 목적, 보상의 가치를 재정립해 연습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는 과학을 입혔다. 보디트랙으로 체중분배와 체중이동 경로 등 스윙 밸런스를 분포도와 그래프로 실시간 추적,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V1디지털비디오 스윙분석으로 스윙하는 내내 몸의 움직임을 평면, 측면, 정면에서 3D로 관찰 녹화해 분석하고 변화를 기록한다. 군사용 레이더 플라이터 스코프로는 실내에서도 인도어 연습장과 같은 98% 현실과 동일한 비거리, 방향성 등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기록한다. 이는 보다 정확한 교습을 위한 필수기록이다.

그를 찾아온 아마추어 골퍼들은 대부분 “저 문제 많죠?”, “이거 잘못 됐죠”라고 말한다. 그의 답이 걸작이다. “저는 수강료를 받고 당신의 스윙을 대신 연구하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일은 저에게 맞기시고 당신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휘두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양전문학교 골프산업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하 교수는 골프교습전문가, 골프경영전문가, 골프유통관리사 등 보다 많은 후배들을 발굴, 양성하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이다.

한편, 김동하 원장은 프리미엄 경제지 이투데이에 매주 1회 알기 쉬운 골프레슨 ‘김동하의 사이언스골프’를 연재한다.

안성찬 골프 대기자 golfahn58@



더 가볍고 더 빠르게 ‘최고의 비거리’ 구현

캘러웨이, 스윙 5가지 조건 갖춘 ‘빅버사 베타 16’

가볍고 편한 스윙으로 최고의 비거리를 낼 수 있을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캘러웨이 골프(데표이사 이상현)는 긴 시간을 고민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헤드 디자인, 페이스 기술, 경량화, 임팩트 사운드, 편안한 스윙 등 다섯 가지 요소가 비거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결과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새로운 시리즈 ‘빅버사 베타 16’을 완성했다.

빅버사 베타 16은 이전 모델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능으로 더 가볍고 더 빠르게 최고의 비거리를 구현해준다. 빅버사 베타 16 시리즈는 드라이버와 페어웨이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의 4가지 라인업으로 남성용과 여성용 모두 출시된다.

드라이버는 역대 캘러웨이 드라이버 가운데 가장 가볍다. 초경량 8-1-1 티타늄 헤드와 가벼운 그립으로 총 중량을 263g(R2 샤프트 기준)으로 줄여 스윙 웨이트를 D0로 낮추었고, 그 결과 빠른 헤드 스피드와 쉬운 임팩트를 실현한다.

페이스는 캘러웨이의 최신 기술인 알모토(R-MOTO) 기술이 적용돼 높은 반발력을 제공, 볼 스피드를 높여 차원이 다른 비거리를 가능케 한다. 또한 바닥면의 사운드 립 구조는 임팩트 시 맑고 경쾌한 타구음을 만들어 낸다.

한층 넓어진 헤드 면적이 어드레스와 스윙에 안정감을 더해 주는 한편, 더욱 향상된 관성모멘트와 깊은 무게중심은 높은 탄도와 낮은 스핀으로 비거리를 늘려준다.

아이언은 이전 모델보다 헤드 사이즈를 키우고 무게를 재분배해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5번 아이언부터 피칭 웨지까지 적용된 360 페이스 컵 기술은 볼 스피드를 높여 더 진화한 비거리를 제공한다.

임팩트 시 생생하게 전해지는 부드러운 타구감의 비밀은 텅스텐 스누버 소재에 있다. 솔과 페이스 사이 틈새에 배치된 12g의 텅스텐 스누버가 작은 떨림까지 잡아내 페이스에 볼이 달라붙는 듯한 타구감을 선사하며 더욱 낮은 무게중심으로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언은 두 가지 종류의 샤프트가 마련돼 있다. 그라파이트 디자인사의 카본 샤프트는 터치감을 강화해 부드러운 스윙을 제공하며 트루템퍼사의 스틸 샤프트는 에너지 전달 효율을 극대화해 빠르고 강한 스윙을 만들어준다.

페어웨이 우드와 하이브리드는 이전 모델보다 헤드 크기가 커져 어드레스 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윙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한 관성모멘트가 향상되었으며 깊게 배치된 무게중심이 높은 탄도를 실현해 놀라운 비거리를 만들어낸다.

두 제품에 모두 적용된 새로운 하이퍼 스피드 페이스 컵 기술은 페이스의 반발력을 더욱 강화해 볼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한편, 미스샷에서의 비거리 손실을 줄여준다. 초경량 카운터 밸런스로 설계된 샤프트는 스윙을 더욱 가볍고 쉽게 해준다.

캘러웨이골프 김흥식 전무는 “빅버사 베타 16 시리즈에는 보다 쉽고 편하게, 멀리 볼을 보내기 위한 캘러웨이의 모든 답이 집약돼 있다”며 “가볍고 편한 스윙으로 가뿐하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최선의 클럽”이라고 말했다.

안성찬 골프 대기자 golfahn58@

이재철의 골퍼와 면역건강



자외선 피해 꽁꽁 싸맨 여성골퍼들의 건강은?

요즘 필드에 나가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강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있는 골퍼들이 많은 탓이다. 얼굴에 허옇게 바른 선크림에 쿨토시, 손등보호 장갑, 뒷목을 보호하기 위해 옷깃을 세우는 등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완전무장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자외선 때문에 발생하는 기미, 잡티, 피부암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는 노력인 것을 알지만, 매일 면역력이 떨어져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는 의사로서 아쉬움이 크다. 건강을 위해 하는 골프가 자칫 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어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D 때문이다.

비타민D와 면역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수지상세포, T-림프구, B-림프구 등 많은 면역세포는 비타민D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비타민D는 이 수용체를 통해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 체내에 침입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또한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 감염에 의한 발병률을 줄인다. 면역력 약화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인 대상포진의 경우 환자 대다수가 비타민D 결핍이다.

비타민D는 면역세포뿐 아니라 갑상선, 피부, 폐, 췌장, 신장, 뼈, 장, 혈관벽 등 우리 몸 대부분의 장기에 있는 비타민D 수용체를 통해 다양한 순기능을 수행한다. 미국 보스턴 의대 홀릭 박사에 의하면 비타민D 하루 권장량 섭취 시 전립선, 유방,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각각 30~50% 줄일 수 있다. 또한 칼슘과 인의 수준을 적절한 범위로 조절해 신경근육과 뼈의 기능을 강화하기도 한다.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D를 체내에 공급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오존층, 스모그 등으로 오염된 대기에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D를 얻기 어렵다.

등푸른 생선, 우유, 달걀노른자, 버섯 등의 식품으로 비타민D를 섭취할 수도 있지만 성인 하루 최대 권장량인 2000IU를 식품으로 모두 채우기란 불가능하다. 비타민D 때문에 매일 계란을 80개씩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햇빛과 식품으로 비타민D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나 주사 같은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햇빛을 통해 우리 몸이 비타민D를 합성할 때는 적정량 초과 시 합성 작용을 자동으로 멈추지만 영양제나 주사의 경우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비타민D 과잉 시 오히려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의 하루 권장량을 파악한 뒤 부족한 양을 보충해야 한다.

반에이치클리닉 원장·통증의학 전문의



왼쪽부터 상반기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혜민 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2위에는 2007년 출간된 뒤 맨부커 상을 받아 화제가 된 한강의 '채식주의자', 3위는 '미움받을 용기'가 차지했다.

맨부커…소설의 부흥? 서점가 모처럼 웃었다

책 판매량 3년째 줄다 상반기 반등
한강 작품 등 국내 소설 판매 30%↑
국내외 스타 작가 잇단 신간도 한몫
종합 1위는 혜민 스님 '완벽하지…'

지난 3년간 줄곧 감소했던 도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설 분야의 성장세가 반등을 이끌어 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이 10분을 넘는 한국인은 9.7%에 그쳤다. 1인당 평균 독서 시간도 9분(1999년)에서 6분으로 줄었다. 독자들의 독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도서 판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교보문고와 예스24가 각각 발표한 상반기 도서 판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인기 저자의 후속작 출판과 '채식주의자'(한강 저)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등 희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도서 시장이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는 14일 '2016년 상반기 도서 판매 동향'을 통해 "2012년 이후 평균 4%가량 감소하던 도서 판매가 2%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구매 패턴을 들여다보면 혜민 스님의 전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구매한 독자 중 27.9%가 후속작인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일본 심리학자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를 구매한 독자 중 60.2%가 '미움받을 용기2'를 구매하는 등 전작 도서를 구매한 독자들의 재구매율이 높았다.

소설 분야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0.2%, 시·에세이 분야는 25.2%가 신장했다. 그중에서도 한국 소설은 30.9%의 신장률을 보이며 소설의 부흥을 이끌었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중진 작가들의 표절 논란으로 한국 문학이 부침을 겪었으나, 한강의 맨부터상 수상이 독자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신간 출간도 애독자층을 불러 모았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스테디셀러를 배출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라플라스의 마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출간도 힘을 소설 분야의 부흥에 힘을 보탰다.

예스24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상반기 분석 자료에서도 소설 분야의 강세는 두드러졌다. 특히 전통적으로 연초·연말(11월~1월), 여름 휴가철(7월)에 소설을 찾는 독자가 많았던 흐름에서 벗어나 3월부터 판매량이 증가했다. 올해 5월 62만 권의 소설이 팔리며 최근 5년간 5월 평균 판매권수인 50만 권을 훌쩍 넘어섰다. 예스24는 "국내소설의 인기는 김탁환, 정지돈, 김근희, 장강명 등 스타 작가의 출간 소식이 이어지며 당분간 지속될 것. 북유럽 소설의 인기도 여전하고, 해외 베스트셀러 작가의 출간도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상반기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에선 혜민 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책은 출간 후 정상을 찍은 뒤 최근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2007년 출간된 뒤 맨부커 상을 받아 화제가 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차지했다. '미움받을 용기'가 3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과 일본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6위, '라플라스의 마녀'는 7위에 올랐다. 도서정가제 이후 독자들이 책의 표지 디자인, 편집 등 소장 가치에도 관심을 가지며 인기를 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이 8위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너머 편'이 뒤를 이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국제도서전 19일까지



'2016 서울국제도서전'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투명인간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책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도서전에선 20개국 346개 출판사가 참가,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소개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6600만년 전 '암흑 물질'이 공룡 멸종시켜"

리사 랜들 하버드대 교수 신간서 주장
과학적 가설 제시…"입증은 오래 걸려"

리사 랜들(54)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과 교수는 신간 '암흑 물질과 공룡'에서 공룡을 멸종시킨 혜성이 지구로 향하게 된 원인을 '암흑 물질'의 존재로 설명했다.

암흑 물질은 중력 반응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물질로 가시광선 같은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원자로 구성된 보통 물질보다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배 이상 크다고 보지만, 실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랜들 교수는 "암흑 물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며 "암흑 물질은 우리와 동떨어진 무언가가 아니다. 더 이상 이름에 현혹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신비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랜들 교수는 암흑 물질과 연관 지어 공룡 멸종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랜들 교수의 가설에 따르면 항성이 밀집한 우리 은하 내의 원반면은 이중으로 돼 있다. 태양은 은하계를 공정하며 이 중 원반을 3200만 년 주기로 지나는데, 이때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태양계 끄트머리 천체들이 암흑 물질의 영향으로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하나가 혜성이 돼 6600만 년 전 지구와 부딪혀 공룡의 멸종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다. 다만 아직 입증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는 "나는 '모델 빌더(이론과 가설을 만드는 학자)'다. 일단 현재까지의 과학적 발견을 통해 가설을 제시한 것이며 확인하고 입증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암흑 물질과 공룡' 중 은하계 구조에서 암흑 물질 원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랜들 교수는 은하계의 탄생부터 태양계의 구성까지 우주의 역사를 암흑물질을 중심으로 일반 독자가 다가가기 쉽게 풀어냈다.

베스트셀러 '숨겨진 우주',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를 저술한 그는 이 책에서 독특하고 광범위한 관점으로 암흑 물질을 지구, 우주의 역사와 연결지었다. 대중문화와 사회·정치적 관점도 끌어들이며 암흑 물질, 우주, 우리 은하, 지구와 천체의 충돌에 관한 최신 발견들을 사실로 확인된 것뿐만 아니라 추측 단계인 이론까지 모두 소개한다.

랜들 교수는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암흑물질이 우주 역사에는 물론이고 지구에 사는 생물들의 흥망성쇠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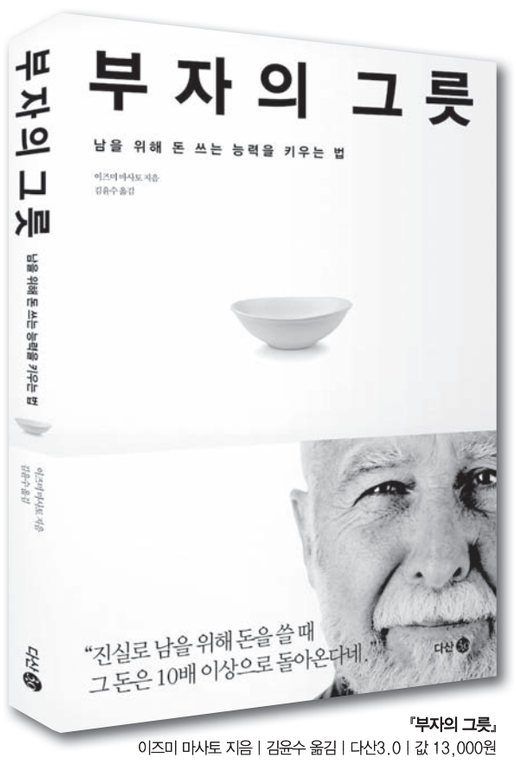
샹들리에
김려령/창비/1만2000원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작가 김려령이 소설집 '샹들리에'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첫 장편소설 '완득이' 이후 8년 동안 써온 작품을 엮어 처음으로 펴내는 소설집이다. 명쾌하고 재치 있는 그의 문체가 돋보이며, 그동안 장편소설에서 보여 준 흡입력과 속도감 있는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작품 속 인물은 모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같고 우리 자신과도 닮아 있다. 가장 평범한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독자의 공감을 끌어 낸다. 첫 번째 수록작인 '고드름'은 등장인물의 대화로만 구성된 독특한 소설이다. PC방에 모여 노닥거리는 청춘의 단상을 그리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삐딱한 시선과 기성세대의 편견을 경쾌하게 풍자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시골에 내려간 중학생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연작 '미진이'로 이어진다. '아는 사람'은 수록작 가운데 가장 뜨겁고 예민한 문제를 다룬다. '만두', '파란 아이', '이어폰'까지 총 7개의 작품이 실려 있다.



지식창업자
박준기·김도욱·박용범/쌤앤파커스/1만6000원

지식 전략 전문가 박준기, 미래 지식 사업가 김도욱, 지식 창업 전문가 박용범이 모여 '지식창업자'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식과 정보를 자본으로 창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진 지식은 무엇인지, 어떻게 창업 밑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 32개 지식 창업 팀의 사례를 통해 그 기회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저자들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식,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지식부터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게임, 요리, 글쓰기마저도 창업에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에는 독자들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더할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IT, 기업가 정신 등 지식 창업에 필요한 전략들이 담겨 있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실전! 지식 창업 팁'을 통해 저자들의 비결도 전수한다. 저자들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밑천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가진 지식과 경험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에 답이 있다"며 "'지식 창업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지음 | 김윤수 옮김 | 다산3.0 | 값 13,000원

▶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나?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부자의 그릇』(다산3.0)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일생을 '돈의 교양과 본질'을 전파하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돈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쾌한 통찰을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그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양 소설로, 한때 12억 연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너에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업가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눈 돈과 인생의 비밀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었을 땐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눈 노인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저자는 파이낸셜 아카데미의 부자수업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자는 늘 말한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순 없을 거 같아'라며 걱정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보길 바란다.

문의 070-7606-7445

Market news

“증권사 수익성 증대 위해 자발적 M&A 많아질 것”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요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16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발전과 성장’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대부분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 M&A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M&A는 장기적으로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證 껴안기 나선 윤종규 회장 〈KB금융지주〉

연내 KB證 통합 앞두고 본사 방문
전 부서 돌며 임직원과 일일이 악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직접 현대증권 여의도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과 교감하는 등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공식 수행원 없이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를 깜짝 방문했다. 윤 회장은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와 담화 이후 전 부서를 돌며 일일이 직원들과 인사와 악수 등을 전하는 스킨십 행보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있던 현대증권 직원은 “지주회장이 직접 회사를 돌며 직원들을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사실 피인수 되는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소통 자세를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전했다.

KB증권과 현대증권의 통합이 연말로 잡힌 가운데, KB지주는 기존의 현대 브랜드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실제 현대증권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최근 전 직원들에게 KB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2개씩 교부했다. 앞서 KB금융지주는 보유 중인 현대, 現代, Hyundai 명칭이 포함된 상표권 일체를 110억원에 현대상선에 양도했고, 현대상선은 다시 현대엘리베이터에 처분했다.

통추위는 사명에서 현대를 빼고 KB를 넣을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새 사명은 KB증권, KB금융투자 등이다. 이의 일환으로 KB측에서 현대증권 직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통합 이전에 KB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일찌감치 전달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막상 KB 배지를 전달받은 현대증권 직원들의 반응은 시원섭섭하다는 게 대세다.

현대증권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과거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켰던 현대증권이 사라지는 것은 한편으로 섭섭하다”며 “그러나 최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 등 관련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도약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주주의 브랜드를 일찍 착용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KB금융지주는 지난 5월 말 인수대금 1조2375억원의 잔금을 현대상선에 납입하면서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인수하는 절차를 끝냈다. 김경아 기자 kakim@



회사채 흥행성공 삼성물산 7~8월 6000억 추가 발행

이달 3000억 수요예측 4700억 몰려
하반기에 5800억 규모 만기 돌아와
차환용 자금조달 위해 다시 나설듯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 안돼”

삼성물산의 2015~2016년 회사채 발행내역

발행일	만기일	금액	표면이율
2016년 06월 16일	2021년 06월 16일	1000억원	1.891
2016년 06월 16일	2019년 06월 16일	2000억원	1.736
2015년 12월 01일	2018년 12월 01일	1000억원	2.242
2015년 12월 01일	2020년 12월 01일	1000억원	2.497

삼성물산이 다음달에 올 들어 두 번째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지난 1분기(1~3월) 연결기준 4348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삼성물산은 최근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건설업종의 시장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오는 7~8월 중 최대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아직 명확한 시기나 6000억원을 한 번에 모두 발행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달 발행된 삼성물산의 3000억원 회사채 중 일부는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을 갚는데 쓰일 것으로 예측했으나, 모두 운영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삼성물산이 차환용 회사채 발행에 나서기 위한 시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8월 1500억원, 9월 1800억원, 10월 2500억원 등 올해 모두 58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삼성물산이 최근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 자금은 대부분 현금 상환보다는 차환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에 대한 시장 반응도 좋다. 16일 발행된 3000억원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4700억원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분기 실적쇼크로 당초 지난 4월 발행하려던 회사채를 두 달 미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멘트 산업을 보면 건설업종의 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며 “더욱이 삼성물산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회사채 유통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리도 개선됐다. 삼성물산이 16일 발행한 회사채의 표면이율은 5년물 1.891%, 3년물 1.736%다. 이는 민간신용평가사 평균 금리보다 각각 9.8bp(1bp=0.01%포인트), 7.8bp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삼성물산이 발행한 5년물(2.497%)과 3년물(2.242%) 회사채 금리와 견줘서는 크게 낮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조달금리를 낮췄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win-win)인 셈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직 하반기 회사채 발행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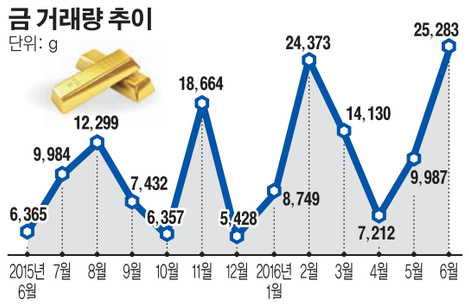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대외불안 속 믿을건 金…거래량 ‘역대 최대’

英 EU탈퇴 가능성·美금리…반사이익
이달 하루 평균 25kg로 작년보다 4배↑
“당분간 강세…온스당 1300달러 전망”

금 거래량 추이

단위: g



이달 들어 KRX금시장의 주요 시장지수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개설 후 줄곧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던 KRX금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우선적인 지표는 거래량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1~15일) KRX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5.283kg으로 지난해 같은 달 일평균 거래량(6.365kg)보다 약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대부분을 10kg 아래에서 머물던 거래량은 올해 들어 2월 24.373kg을 기록한 뒤 다시 6월 들어 최대치를 경신했다.

거래대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6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2억2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억7100만원)의 4.5배가 넘었다. 이달 들어 지속된 브렉시트 우려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4만6620원이었던 1g당 금 거래가는 16일 현재 4만9050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5.21% 상승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래소 내 KRX금시장 담당 부서는 시장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주로 지하경제에서 일어나는 금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도와 달리 수요자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서’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장지표가 상승함에 따라 담당부서의 분위기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값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브렉시트가 가결된다면 금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고,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보호무역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지명됐다는 점도 금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황선구 팀장은 “적어도 7~8월까지는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국제 금값이 온스당1300달러대 후반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삼성운용, 3개 자회사 신설…국내 첫 운용그룹 도약

ETF·인덱스등 패시브는 모회사로 존속…액티브펀드는 성장·가치·헤지펀드로 분사

삼성자산운용이 연내 주식형 액티브펀드 부문을 분사하고 국내 최초로 자산운용그룹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주식형 액티브펀드 부문을 분사해 그로쓰, 밸류, 헤지펀드 부문 3개 운용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룹내 복수 운용사간 업무 위탁을 활성화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자산운용은 다음달 중 금융당국에 이 같은 내용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자산운용의 사업부 분사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업계에서 거론됐었다.

특히 존속법인의 주축이 되는 패시브는 여타 사업본부 중 수탁고가 가장 크다. 패시브는 ETF, 인덱스, 채권운용, 투자풀 운용본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삼성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이번 분사를 통해 부문별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속내가 담겼다는 진단이 나온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통상 조직이 커지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분사를 통해 부문 운용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손명완, 동원금속 최대주주와 지분差 불과 3.1%P



동원금속 지분율 (5% 이상 주주)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이은우	9,934,073	28.98
손명완	8,858,677	25.83

2014년부터 꾸준히 매입… 현재 25.83%까지 확대
28일 주총 앞두고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 후보 올라

'슈퍼개미' 손명완 세광무역 대표가 오는 28일 열리는 동원금속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다. 동원금속은 손 대표의 주주제안에 따라 그를 사내이사 후보로 올리고,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정관변경안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손 대표는 동원금속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내용의 참고서류를 정정공시했다. 손 대표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취지를 기존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에서 '주주제안 관련 의결권 확보'로 정정했다. 15일 동원금속도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참고서류를 공시했다.

손 대표는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과 사업연도 변경, 현금배당 확대 등을 주주제안했다. 동원금속은 사내이사 후보자에 박형태 동원금속 경영지원사업부장과 손명완 대표를 올렸다. 회사 측은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사내이사 선임에 손 대표가 자신을 후보자에 올릴 것을 주주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원금속은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기존 매년 4월 1일~다음해 3월 31일)하는 정관변경안, 현금배당을 1주당 100원에서 250원으로 확대하는 의안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손 대표는 지분율도 확대했다. 15일 손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동원금속 주식 14만1470주를 장내매수해 지분율이 25.42%에서 25.83%로 0.41%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은우 대표이사(28.98%)와 지분율은 3.1%포인트로 좁혀졌다.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인 이은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1.82%다.

손 대표는 지난 2014년 1월 동원금속 지분 6.55%를 사들이면서 주식 보유목적을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동원금속 주식을 꾸준히 매입했다. 지난해 말 19.36%였던 손 대표의 지분율은 15일 기준 25.83%까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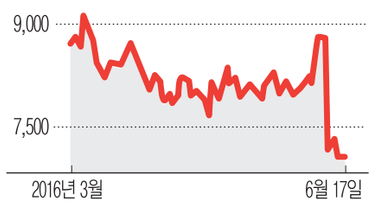
한편 동원금속은 경상북도 경산 소재의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다. 지난 3분기 누적기준 매출액 3336억 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34억 원, 44억 원을 기록했다. 김미정 기자 mjk@

종목돋보기

'스파크 VR존' 상하이 영화제서 눈길
레드로버, 中·日 등 해외기업서 러브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가상현실 접목
하루평균 방문객 2000명 문전성시
요우쿠·SEGA 등 구입문의 쇄도

레드로버 주가 추이
(단위: 원)



상하이 국제 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VR(가상현실) 전시회에서 선보인 레드로버의 '스파크(SPARK) VR 존(ZONE)'이 관련 업체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다.

글로벌 콘텐츠기업 레드로버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서 '스파크 시뮬레이터'와 IP를 활용한 VR 콘텐츠를 전격 공개 중이다.

매년 6월 동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상하이 국제 영화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VR 전시회는 상해 문화방송영화 TV 관리국과 상해 보타국 인민정부가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전 세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회사 관계자는 "레드로버의 'SPARK VR ZONE'은 일 평균 방문자 2000명 이상이며, 행사기간에 약 3만여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VR을 연계해 개발한 '스파크 라이더(SPARK RIDER)'는 5살 어린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모두 탑승 가능해 이를 체험하려고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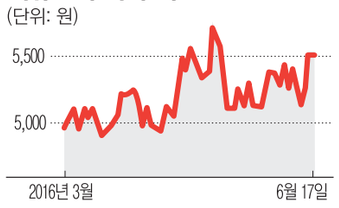
레드로버의 '스파크 라이더'는 3D입체 모니터 제작기술, 4D시네마 시스템, 360 파노라마 스크린 제작 노하우를 접목시킨 뛰어난 현실감과 몰입감으로 이미 국내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레드로버는 관계자는 "'스파크 VR ZONE'을 체험한 중국의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요우쿠', 일본 비디오 게임 전문업체인 'SEGA' 등 중국 및 해외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며,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요우쿠의 VR 고위 관계자는 영화 SPARK VR 콘텐츠와 시뮬레이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두 회사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성시종 기자 ssj@

시큐브 '클라우드 보안솔루션' 삼성·SK에 공급

통합계정권한관리 '아이그리핀'
내부통제 용이…서비스 체계화
금융권·대기업·국방분야 등 선점

시큐브 주가 추이
(단위: 원)



시큐브가 삼성전자에 클라우드 기반 보안솔루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삼성전자 클라우드 시스템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시큐브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솔루션 아이그리핀은 국내 유일 클라우드 기반 보안솔루션"이라며 "현재 국내 대기업 클라우드 시스템에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과 구글 등 전 세계 글로벌 IT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오픈베이스, 디오텍 등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날 삼성전자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조이언트(Joyent)'를 인수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수합병(M&A)과 함께, 첨단 기술 관련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발 빠른 투자자들은 시큐브가 삼성전자에 클라우드 기반 보안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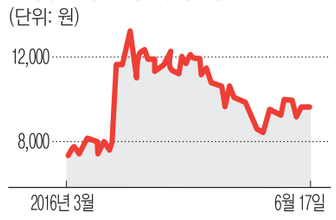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큐브는 통합계정권한관리 솔루션 '아이그리핀(iGRIFFIN)'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만족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적합하도록 체계화시킨 국내 유일한 제품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큐브는 금융권을 비롯해 대기업과 국방 분야 사업화에 성공해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3년 삼성전자로부터 15억 원 규모의 통합계정 보안관리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여기에 올해 클라우드 서비스환경에서도 적합하도록 체계화시킨 제품을 인증받았다는 사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시큐브가 삼성전자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큐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G-ERP 서버 접근 통제·사전 징후탐지 강화 iGRIFFIN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큐브는 최근 알리바바와 사업 제휴한 SK C&C에 서버보안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며 "시큐브는 서버보안 1위 제품과 더불어 클라우드 보안제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대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어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로켓모바일 주가 추이
(단위: 원)



서울리거·코웰패션 1대1 합작법인 설립
화장품 브랜드 론칭

최근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명을 변경한 서울리거(옛 로켓모바일)가 코웰패션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서울리거는 16일 코웰패션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열고 공동으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인식을 통해 서울리거와 코웰패션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씨에프코스메틱스(CFCosmetics)'라는 이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화장품 브랜드 리거톡스(LeaguerTox)를 론칭해 본격적인 홈쇼핑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서울리거는 홍성범 원장의 의료 노하우와 휴젤의 보톡스·필러 연구개발 기술을 접목시킨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제품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코웰패션은 홈쇼핑 유통 부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경영을 맡아 유통 및 마케팅을 책임질 예정이다.

리거톡스(LeaguerTox)는 향후 보톡스로 유명한 휴젤 피부과학 연구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된 코스메슈티컬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능성 마스크시트 및 앰플과 기초 화장품을 통해 시장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합성어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기술 및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말한다. 최근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일반적인 화장품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은 매년 22%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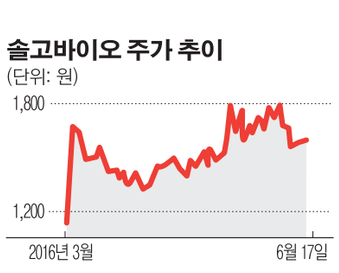
특히 현재 서울리거는 의료수출기업으로서 국내에 메디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시장에 한국형 마이크로클리닉, 의료기반 화장품 등을 수출할 예정이다.

서울리거 관계자는 "이번 추진될 화장품 사업은 서울리거의 전문 기술력과 코웰패션의 홈쇼핑 유통,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홈쇼핑 화장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솔고바이오 '수소수' 美FDA 승인받고 수출 속도

활성산소와 결합 체외배출 효과
日·러 이어 유럽·咽도 협약 진행
스펜서·텀블러 제품 수요 높아

솔고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솔고바이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 및 승인 효력이 발생해 해외 수소수기 시장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솔고바이오 측은 16일 "지난 3월, 미국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소샘 디스펜서 디럭스', '수소샘 텀블러', '수소샘 직수형 수소수 생성기' 등 3개 제품에 대한 FDA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소수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승인 대상이 아니다. 등록만으로 현지 판매가 가능하고, 공신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솔고바이오의 FDA 등록에 대해 제품의 성능과 효능, 안정성에 대해 검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 마케팅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능성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헬스케어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9월 일본 판매 계약 당시 후생성 산하 품질테스트를 완료했고, 지난 4월에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판매 인허가를 받는 등 해외 진출에 추진력이 붙었다. 현재 유럽과 동남아 등 아시아권과도 수출 협약을 진행 중이다.

수소수는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활성산소와 결합해 이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고농도의 수소가 용존돼 있는 기능성 물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은 최근 이온수에서 수소수로 사용량이 급변했고, 중국은 국영방송국 CCTV에서 수소수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솔고바이오 측은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디스펜서, 텀블러 등이다"며 "현재 말레이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휴대용 수소수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수소의 특성상 전기분해를 통해 생성된 수소 대부분이 공기 중으로 쉽게 방출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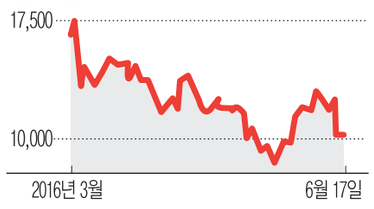
다만, 최근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수소를 식품 첨가물로 허용하면서 향후 먹는 샘물 시장에서 수소수 제품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수소수 제품의 보존용기로 사용되는 알류미늄 캔이나 파우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먹는 샘물의 10%를 수소수로 대체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250억 엔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수소수는 먹는 샘물 중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입증된 물로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sun@

세븐스타웍스, 233억에 유지인트 인수
'머시닝센터 리스판매' 해외시장 개척

국내 시장점유율 51% 1위 업체
中모회사 폭넓은 네트워크 결합
IoT 도입한 스마트 공장구축도

세븐스타웍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세븐스타웍스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소형 머시닝센터(MCT)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유지인트를 인수했다.

세븐스타웍스는 유지인트 지분 251만 6800주(10.55%)를 총 233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달 10일 체결했으며, 대금 납입을 완료해 유지인트 인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스타웍스가 인수한 유지인트는 지난해 매출 771억 원, 영업이익 127억 원, 유동성 현금자산 약 8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한 회사이다. 유지인트는 머시닝센터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51%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다. 세븐스타웍스는 모회사인 양광칠성미디어그룹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해외 현지금융사 네트워크와 결합해 해외 금융 리스를 통한 머시닝센터의 리스판매로 중국과 해외시장을 개척해 유지인트의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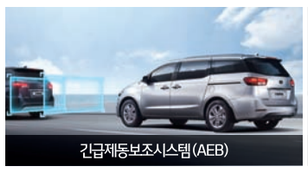
또 기존 머시닝센터에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해 생산공정의 완전 자동화와 지능형 초정밀가공 등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차세대 머시닝센터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신성장 동력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세븐스타웍스는 이번 인수를 완료하게 돼 국내 상장사, 창투사, 미국 나스닥 상장사(YOD), VR개발사(에픽VR) 등을 거느린 명실공히 양광칠성그룹의 핵심기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아빠의 마음으로 더 완벽해진 2017 카니발

| 아빠의 마음으로 더 안전하게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


스마트 에어백(운전석/동승석)

| 아빠의 마음처럼 더 배려 깊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사양 구성은 인승 모델별,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KIA

The Power to Surprise

AutoPacific VEHICLE SATISFACTION VSA AWARD

기아자동차 / 카니발 2016 美고객만족도 조사 1위

美 자동차 전문 컨설팅 회사 오토퍼시픽 선정

-기아자동차 1위(일반 브랜드 부문), 카니발 1위(미니밴 부문)

오토퍼시픽(Auto Pacific) 2016 차량만족도조사

미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 컨설팅社 오토퍼시픽에서 주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신차 구매 만족도 조사('15~'16 신차 구매자 65,000 여명 대상)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카니발 7인승 · R 2.2E-VGT 디젤 자동 6단 19인치 타이어 : 복합연비 11.2km/ℓ (도심연비 : 10.2km/ℓ / 고속도로연비 : 12.9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098kg | 복합CO_2 배출량 179g/km – 4등급 · 람다 Ⅱ 3.3 GDI 자동 6단 19인치 타이어 :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 7.3km/ℓ / 고속도로연비 : 10.0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47kg | 복합CO_2 배출량 216g/km – 5등급 ▷ 카니발 9인승 · R 2.2E-VGT 디젤 자동 6단 : 복합연비 11.5km/ℓ (도심연비 : 10.4km/ℓ / 고속도로연비 : 13.3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130kg | 복합CO_2 배출량 174g/km – 4등급 · R 2.2E-VGT 디젤 자동 6단 19인치 타이어 : 복합연비 11.2km/ℓ (도심연비 : 10.2km/ℓ / 고속도로연비 : 12.9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138kg | 복합CO_2 배출량 179g/km – 4등급 · 람다 Ⅱ 3.3 GDI 자동 6단 19인치 타이어 :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 7.3km/ℓ / 고속도로연비 : 10.0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120kg | 복합CO_2 배출량 216g/km – 5등급 ▷ 카니발 11인승 · R 2.2E-VGT 디젤 자동 6단 : 복합연비 11.5km/ℓ (도심연비 : 10.5km/ℓ / 고속도로연비 : 12.9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137kg | 복합CO_2 배출량 175g/km –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3년 8월 16일 이후 제작되는 11인승 승합차에 110km/h 최고속도제한 장치가 의무 장착됩니다

AUTO Q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Care Service
기아자동차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